

주한대사와 함께하는 서울혁신교육 공감 토론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1월 30일(월) 15시부터 서울시 종로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주한대사와 함께하는 서울혁신교육 공감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고 국제 교류가 힘들어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외공관과 함께 상대국 언어로 말하며 친구를 사귀는 온라인 수업, 주한대사 학교 방문, 재외공관 오픈 하우스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한대사와 함께하는 서울혁신교육 공감 토론회」는 교육청과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는 재외공관 중 한국에서 오래 근무한 외교관의 시각으로 본 서울교육에 대하여 생생한 조언을 듣고자 마련하였다. 토론회 주제는 △한국 교육정책에 대해 느낀 점과 개선사항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교육제도 △코로나-19 이후 위기·인공지능 시대에 직면해서 교육과 학교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유럽연합 대표부 등 5명의 대사가 참석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며 교육교류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는 대사들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자국의 교육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이클 대나허(Michael Danagher) 주한 캐나다 대사는 학생 졸업후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이 병행되는 코업(CO-OP)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필립 안토니 터너(Philip Anthony Turner)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뉴질랜드에서 친숙한 온라인 학습 커리큘럼 에듀테크(ed tech)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뉴질랜드 초·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소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며, 토론회 전 과정이 유튜브(서울특별시교육청 채널)로 실시간 중계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토론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재외공관 간 정보공유와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담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주한대사와 함께하는 서울혁신교육 공감 토론회 2020. 11. 30(월) 15:10 ~ 17:00 더 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 (서울시 종로구) 참석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김영철 서울특별시부교육감, 제임스 최 주한 호주 대사, 필립 안토니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마이클 대나허 주한 캐나다 대사,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 토론회 주제: 한국에 오래 체류한 전문가 입장에서 한국 교육의 개선사항, 자국의 교육제도와 프로그램 중 한국에 소개하고 싶은 내용, 코로나-19 이후 위기 인공지능 시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교육과 학교의 변화방향. 참여방법: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검색, 채널에 입장하여 시청 가능. YouTube

[칼럼] 파파라치와 공익제보의 차이점

어제는 늦은 밤까지 글을 쓰다 야식이 생각나 인근 통닭집을 찾았다. 맥주라도 곁들이면 갈증과 허기가 면해질 것은 같은 기대감으로 찾아간 단골집의 짧은 사장은 인상이 여간 찌푸리는게 아니다. 이유인 즉 마스크 안 쓰고 찾아온 고객에게 통닭을 팔았다가 마 파파라치에게 사진이 찍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15일간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는 하소연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평소 보다 절반도 안 되는 매출로 차라리 폐업하는 게 더 낫다는 고민을 하던 중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고자질과 일러바치기가 직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아예 대 놓고 파파라치 방법과 보상금 수령에 대한 절차를 강의해 주는 학원이 있을 정도니 더 말해 뭐하랴. 국민건강을 위해 정해진 마스크 착용은 당연히 해야겠기에 그 어떤 변명도 못하고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는 낯두리다. 이어 가게 문 닫으면 자신들 카메라 들고 파파라치 시장에 뛰어든다. 어찌는 대로 신고할 것이라는 분노가 가득했다. 어쩌다 불법에 대한 단속의 손길이나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현실의 대체인 파파라치의 탄생의 배경은 누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두고 볼 일이다. 당초 취치와는 달리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에서 비롯된 파파라치, 같은 모양인데 전혀 색깔이 다른 공익신고와 겹치면서 우리 사회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분열과 갈등의 도가니가 끓이지 않고 있다. 원래 파파라치는 정치인, 연예인 등 대중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을 대상으로 몰래 사진을 찍는 사진사로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반인의 범법행위 장면을 몰래 찍어 행정기관 등에 신고 목적으로 제출하는 사진사로 변질된 것이다. 과거를 거슬러 보면 2011년 3월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자동차와 파파라치의 합성어인 카파라치가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쓰레기범법투기를 신고하는 쓰레기파라치, 학원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는 학파라치, 약국의 불법사함을 신고하는 약파라치 등 법규를 위반하는 모든 분야로 확산되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경계와 불신의 위험한 상황들이 빠르게 번졌다. 특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암행순찰차가 등장, 외형상으로는 일반 차량과 다를 바 없으나 위반차량이 발견되면 내부에 설치된 경광등과 사이렌까지 작동되면서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러한 단속으로 인해 사고위험이나 도로교통법의 위반차량도 줄일 수 있으나 반대로 모든 차량이 언제든 암행단속차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사회적 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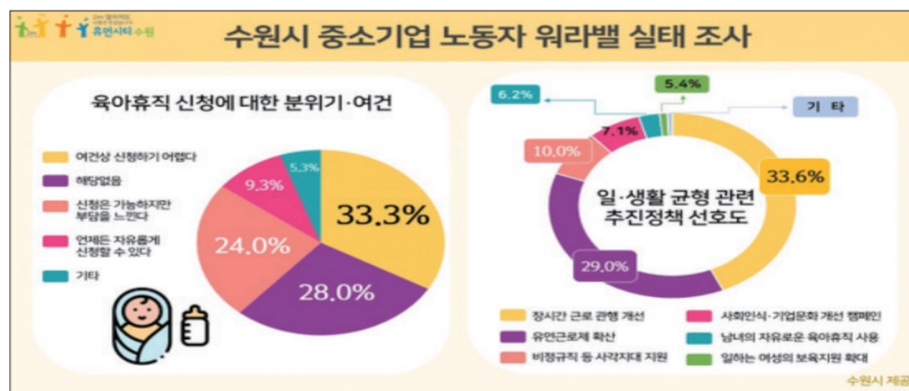
기로 변해갔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누구든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의 조장은 감히 누구도 지적하지 못하다 보니 법을 정하는 자의 결정이 곧 법이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약 30년 전만해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맞은편 방향에서 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번쩍거리며 교통단속이 있음을 암시하는 신호를 전해주고 가는 차량 또한 오는 차량에게 같은 안내를 해주는 혼 혼(?)인식의 국민정서였다. 지금은 사거리 신호를 위반하게 되면 언제 어느 곳에서 블랙박스에 찍혀 신고될 지 모르는 살벌한 교통 환경으로 변모했다.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파파라치가 성행하고 모든 업종에서 여자하면 신고대상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자는 적절한 보상금을 챙기는 사회, 소위 당한 자는 피멍이 들지만 그래도 위반자라는 처지에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상황, 과연 이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거미줄 같은 법망에 걸린 안 걸리는 게 없는 규제, 오죽하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까. 필자가 취재를 하다보면 별 말도 안 되는 제보가 다 들어온다. 대부분 법대로 하라 안 되거나 이래저래 해보고 안 되면 찾아오는 자들이다. 물론 한쪽만 듣고 같이 부하노동 하다가는 언제 불변을 당할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서로 이간질하고 미워하며 당한 자는 분노로 또 다른 고발자가 되는 도미노 현상을 보면서 장차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나 싶다. 물론 신고에 대한 순기능도 있지만 법을 정하기에 앞서 순기능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대로 간다면 누구든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이 사회는 배려보다는 이기적 분위기가 팽배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오래 전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에 패하면서 조선총독 아베노부유기가 예언한 말이 새삼 상기되는 건 섬찟할만큼 정확히 적중되고 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조선의 정기를 말살했기 때문에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그 이유는 일본이 조선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지교육을 심어 놓았다고 루소리 했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 적중하고 있다. 대안이 있을까. 어떤 법이든 현실에 맞게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정하고 이를 국민정서에 합당한 한지를 다시 한 번 살펴야 할 것이며 법안 제정 인들이 민초들을 염려하고 안배하는 배려가 결여되어야 할 것이다. 덕암/김근식

'워라밸' 실현하려면 '장시간근로관행'부터 개선해야

수원시·수원시장은시정위원회, '수원시 중소기업 워라밸 실태조사, 정책 개발'

수원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워라밸'의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선택했다. 수원시와 수원시장은시정위원회가 수원벨타플렉스 입주 기업 재직 노동자 2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6%가 '워라밸' 실현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꼽았다. '사차출퇴근·재택·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로제 확산'은 29%,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일·생활 균형 시각지대 지원·점검' 10%, '사회 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이 7.1%였다. 이번 조사는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 53.3%, 여성 46.7%였고 연령대는 20대 29.3%, 30대 33.7%, 40대 26.8%, 50대 이상 10.2%였다. 수원시장은시정위원회는 '수원시 중소기업 워라밸 실태조사,

정책 개발'을 2020년 정책개발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초 수원시 노동정책과와 함께 '워라밸중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관내 중소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벨타플렉스 근무자들은 '관장은 일자리 구성요건'으로 '임금 수준'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회사 비전', '일·생활 균형', '근로 시간'이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은 마음 편하게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답한 응답자는 9.3%에 불과했고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 33.3%,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낀다' 24%였다. 8월 7~14일에는 수원시 6개 공공기관 직원 1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 50.4%, 여성 49.6%였고 직급은 사원급 76.5%, 중간관리자 23.5%였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근



무 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법적 규정 마련'을 선택했다. CEO·근로자의 인식개선 공공캠페인, '지원금 등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이 뒤를 이었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생활 균형 추진체계 구축 및 조례 등 지원제도 정비,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등 포상제도 도입,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 임차 시 일·생활 균형 실천 기업에 가점 부여,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일·생활 균형 홍보 및 문화 조성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공기관 담당자 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 개발 결과를 '2021년 수원시 노동정책 연간 실행계획'에 반영해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또 공공기관·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승/기자

www.yyg.go.kr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을 만나보십시오. 영양군 YEONGYANG-GUN. 영양을 맛보다. 해마다 서울광장을 볼 수 놓는 명품 영양고추에서, 당도 높은 사과와 자연이 길러낸 온갖 농특산물까지 기다려오신 내추블 푸드를 만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땅의 가치, 우리 것이라는 자부심, 믿고 먹는 품질로 영양만점 대한민국적 식탁에 영양군민이 함께합니다. 영양군 농특산물 시리즈. 대한민국 명품 으뜸영양고추·산간고랭지 영양에실산사과·아시아식 시골마을 영양배 피부미인 영양복숭아·저농약인증 영양포도·해발 1,219m 영양수박·비타민 단단 영양고랭지채소·산에서 나는 고기 영양더덕·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영양버섯·전국 생산량 70% 영양천궁·고랭지 무공해 영양감귤·맘으로 기른 영양일말배

영양군 농특산물 시리즈. 대한민국 명품 으뜸영양고추·산간고랭지 영양에실산사과·아시아식 시골마을 영양배 피부미인 영양복숭아·저농약인증 영양포도·해발 1,219m 영양수박·비타민 단단 영양고랭지채소·산에서 나는 고기 영양더덕·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영양버섯·전국 생산량 70% 영양천궁·고랭지 무공해 영양감귤·맘으로 기른 영양일말배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영유아 조기인지교육 85.2%, 조기영어교육 70.4% 부정적

강득구 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 인권보장 위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및 영유아대상 사교육 4대 대책 발표' 공동 기자회견 열어

강득구 국회의원은 오늘 12월 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영유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및 유아대상 사교육 4대 핵심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으로 주최했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아대상 사교육 4대 대책을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한소아청소년정신건강학회에 의뢰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7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시기에 교과목 위주의 조기교육이 신체 및 정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조기인지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85.2%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학습에서의 자율성 저하, 낮은 학습효과, 창의력 저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기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전문의 70.4%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수가 정서발달에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낮은 학습효과, 영어 학습 거부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조기영어교육이 아동발달의 측면,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해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 인권법'을 제정해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의 과도한 인지학습을 금지해 영유아의 놀 권리, 쉼 권리 보장, 영유아 대상 학원의 경우,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안전시설, 강사 및 교육과정의 유의점 등을 반드시 고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 나이스 학원 정보 등록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광고 및 간판 등에서 학원의 교습 과목, 교습대상 등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등 4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의원은 "출발선부터 부모의 배경에 의해 불평등이 유발되는 교육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의 출발선을 바로잡는 자리"고 취지를 설명했으며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인권 보장을 위해서 교과목 중심의 조기교육이 성행하는 상황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향후 영유아인권법 제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지정근 의원 발의 '충남 도시·주거환경 정비 개정안' 상임위 통과

주거정비사업 원할 추진·질적 향상 기대...다음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충남도의회는 지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정비사업 유형 간소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를 기존 100분의 20에서 10으로 완화했다. 재개발사업에 동의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분양을 포기한 주민들에게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주민 주거환경권 보장 내용도 담았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용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

기 위한 조항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 의원은 "그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나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분쟁이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정비와 주택공급정책을 연계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 정비사업의 질적 향상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된다"

송기현 의원,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시·읍·면의 장 등 증명서 발급기관에게 본인이나 자녀 등 지정한 사람의 가족 관련 기록사항이나 증명서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피해자와 관련된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증명서에 표시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 사유가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이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는 재신청을 통해 위 열람·교부 제한을 해

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이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 열람과 교부를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올해 8월 한 법재판소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남편이 이혼 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 가해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송기현 의원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직계혈족이긴 하면 가족 관련 정보의 무제한적인 열람과 교부를 허용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정부/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안전한 수능 실시 위해 마지막까지 철저한 방역 대책 당부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오는 12월 3일에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전한 실시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수험생 방역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서울시내 249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10만6천여명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서울의료원과 남산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 등에 별도의 시험장을 설치하면서 시험장 수는 41곳 늘어났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와 유증상 수험생에게도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병원시험장 등 별도의 시험장을 설치·운영하기 때문이다. 모든 시험장에 참여하는 감독관은 약 2만4천여명 정도이다. 서울시는 별도 시험장 설치·운영 대책 외에도 수능 직후인 4일과 5일에는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수능 감독관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감독관에 자원한 교사들을 위해 수능 감독관 희망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무료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수능 당일에는 서울시내 대중교통 공급량도 대폭 늘린다.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모두 오전 시간대 배차 간격을 최소화해 확대 운행할 예정이다. 교통약자 수험생을 위한 콜택시와 비상 상황 발생 시 수험생을 수송할 차량도 지원한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되는 가운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차질 없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시험당일까지 추가로 확진 받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받는 학생들이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 시험장 설치·운영에 여유를 두고 적극적인 방역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장은 "올 한 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힘겹게 시험을 준비했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며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 수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신은호 의장,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상권 살리기에 노력 할 것

의회도 시장의 활성화, 현대화 사업추진 등을 위해 적극 노력

인권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11월 30일 10시에 심정시장에서 개최된 포스코 건설의 심정시장 상가변영회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하고 시장의 각종 시설의 살펴보고 심정시장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전달식은 신은호 의장, 이성만 국회의원, 시의회 노태순 의원 등과 심정시장 상가변영회 이병관 회장 및 임원 등이 참석했으며 심정2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이 심정시장 상가변영회에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발전기금 전달은 주민들과 상생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해 심정시장

의 활성화에도 기여해 보자는 취지로 추진됐으며 심정시장의 숙원사업인 현대화사업에 기금이 활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신은호 의장과 노태순 시의원은 "포스코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하고 상상한다는 취지로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발전기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기금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현재의 상황을 잘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현대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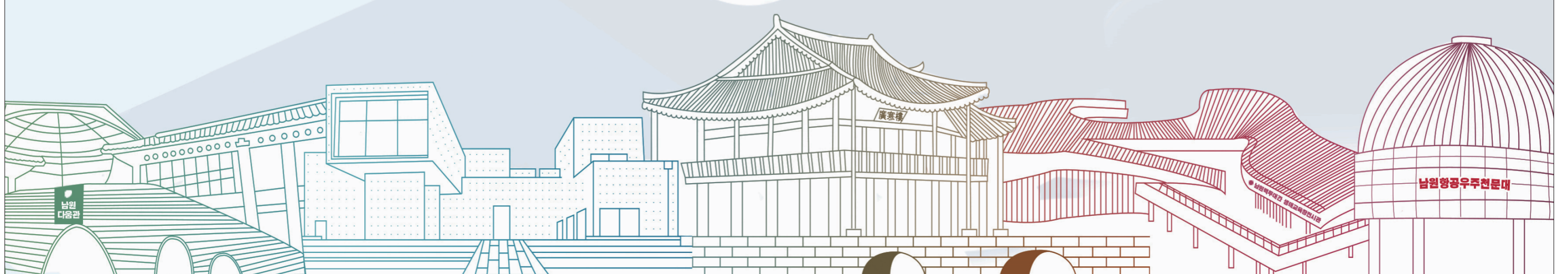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 페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 집 국 : 02) 2612-2959
팩 스 : 02) 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빨강가방 의사 백승희 사랑모아통증의학과 원장



"주사가 해로우면 우리 어머니께 놓겠습니다"

백승희 원장: 1966년 성주 출생. 경원고, 경북대 의과대 졸업. 영남대 의과대 석사. 대구가톨릭대 의과대 박사. 대구가톨릭대병원 외과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사랑모아통증의학과 원장. 통증의학 세부전문의. 대구시테니스협회 회장. 대구시립희망원 촉탁의. 주요 저서 '동네의사 백 원장의 사랑모아 사랑모아' '내친구 봉숙이' 등 15년간 방사선 노출에 손톱만 상해 최대 피폭량에도 건강하던 증거

치료 중 실수했을 땐 솔직히 털어놓는 게 환자에게 믿음을 주는 방법이다. 주사 요일엔 빨간 가방 들고 병사北 이

탈민·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
백승희(54) 사랑모아통증의학과 원장은 의사 고트머리에 엉덩이만 겨우 걸치고 앉아있었다. 그는 환자가 들어오자마자 "어때요?"라고 물었고, 간결한 말투로 문진하고 상담을 끝냈다. "환자들도 앉자마자 엉덩이를 떼시죠? 제가 워낙 바쁜 걸 환자들도 다 알아요. 기다리는 다음 환자를 위해 필요한 것만 묻고 얼른 진료실을 나가시죠." 상담이 끝나자 그는 진료실 옆 주사실로 바빠 걸음을 옮겼다. 백 원장은 X-선 투시기로 신경에 생긴 염증을 찾아내 주사를 놓았다. 한 노인 환자가 "주사 자주 맞으면 해로운 거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나이 어든 녀름 우리 어머니도 매주 주사 맞습니다. 주사가 해로우면 어머니께 놓겠습니까?" 백 원장은 진료실에 클래식 음악을 틀고 병원 곳곳에 그림을 걸었다. 주사를 두려워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다. 진료실 한편에는 너털너털해진 남장갑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이중 종합격투기 UFC에서 활약 중인 최두호 선수와 여자테니스 국내랭킹 1위 장수정 선수와 짝은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백 원장이 후원해 온 선수들이다.

◆ 매일 점심 거르며 진료, 실수도 솔직히 고백방사선 차단 안경을 끼고 폐복 두른 백 원장의 모습은 마치 핵물리학자 같았다.

백 원장은 오른손에 남장갑을 걸쳐 끼고 식사시간 외에는 벗지 않는다. 지난 2002년 개원 이후 15년간 방사선을 맞은 오른손 손톱은 이미 많이 상한 상태였다. "수년 전 후배 한 명이 방사선에 피폭돼 피부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충격을 받고 의사를 계속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죠. 그래도 국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중에 최대 피폭량을 자랑(?)하는 저도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어요." 백 원장은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4시간만 진료 접수를 받는다. 꼭 당일

진료를 받길 원하는 환자들을 위해서다. 이 때문에 오전에 접수한 환자가 오후 늦게까지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일도 있다. 그는 점심을 먹지 않는다. 하루 12시간씩 환자를 보는 습관이 든 탓이다. 그는 "요즘 사람들은 영양 상태가 좋아서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충분하다"며 웃었다. "병원을 찾은 환자가 제게 '돈도 좋지만 쉬엄쉬엄 하시라'는 얘기를 할 때 제일 섭섭해요.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삼으면 병원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열심히 치료하는 거죠." 백 원장은 "나도 사람이라 1년에 한두 번은 실수한다"고 털어냈다. 가령 환자 왼팔에 놓아야 할 주사를 오른팔에 놓는 식이다. 대신 환자마다 병증과 치료법을 기록하고 간호사에게 일일이 확인해 최대한 실수를 줄인다. "실수했을 땐 환자에게 솔직히 말하고 안심할 수 있게 설명을 해요. 그게 믿음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빨간 가방 들고 봉사...왕성한 사회활동에 오히려 백 원장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았다고 했다.

공무원인 아버지는 타 지역 전출이 잦았고, 4남매만 대구에서 함께 지내며 학교를 다녔다. 그는 중학교 입학 후 치른 첫 시험에서 1천 명 중 256등을 했다.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은 서서히 탈선의 길로 빠져들었다. 그는 친구들과 지내는 대신 교과서를 폈다. 조금씩 성적을 올리던 그는 1년 만에 전교 1등으로 올라섰다. 그는 "요즘도 가끔 어머니께 '어무이가 내 의대 가는 데 해준 게 뭐 있노'라고 농담을 한다"고 웃었다. 그는 의과대 진학 후에도 좋은 성적보다는 즐기는 인생을 택했다. 대학 그룹사운드에서 베이스기타를 쳤고, 밤새 맥주를 마시나 수업에 빠진 적도 많았다. 그래도 학사경고는 받지 않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성적을 유지했다. 그가 마취통증의학과를 선택한 건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통증 치료에 전망이 있을 거라고 봤죠. 마침 제가 개원할 때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 붐이 일어났어요. 정말 운이 좋았죠. 매일 온갖 환자들을 만나면서 의사로서 점차 성장했어요. 그는 5년 전부터 빨간 가방 아저씨라는 별명이 붙었다.

매주 수요일마다 빨간색 왕진 가방을 들고 복지시설을 방문해 무료 진료를 하는 덕분이다.

그의 병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료 진료도 해준다. 그는 "진료 봉사는 환자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하며 "봉사를 나갈 때마다 의사에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되새기게 된다"고 했다.

사람 좋아하는 그는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다.

대구시테니스협회장과 사회복지법인 자운복지재단 이사장, 경원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사랑모아봉사단 단장 등이 모두 그의 직함이다. "가끔 제게 '정치하려고 그러느냐'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제가 제일 빛날 때는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 볼 때예요." 요즘 그의 관심사는 정치가 아닌 문학이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인기를 얻어 지난해 에세이집을 출판했고, 요즘

에는 소설도 쓰고 있다. "제2의 직업은 정치인보다는 작가가 좋겠어요. 책이 대박 좀 터졌으면 좋겠네요. 허허."

대구 고액기부자 4호 탄생...사랑모아통증의학과 백승희 원장 대구 지역에서 고액기부자 제4호가 탄생했다. 대구 사랑모아통증의학과 백승희(47)대표원장이 16일 오후 2시 사랑모아통증의학과의원에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이상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한다. 대구에서 4번째 회원이 탄생한다.

공동모금회 사회지도층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고 나눔 운동에 참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 고액기부자의 클럽으로 1억원 이상 기부 또는 약정할 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백 원장은 1966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등에서 학업과 진료활동을 수행했고 2002년 2월 1일 사랑모아통증의학과의원 개원해 대표원장으로 수감족 작은 통증환자를 돌보고 있다. 백 원장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그동안 대한적십자사, 죽전동



사랑모아통증의학과의원 대표 백승희 원장은 1966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등에서 학업과 진료활동을 했다.

2002년 2월 1일 현 사랑모아통증의학과의원 개원해 대표원장으로 통증환자를 돌보아 왔다.

백 원장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대한적십자사, 죽전동 행복나눔공동체,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한사랑 마을 등에 후원해 왔지만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1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기부금 1억 원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게 된다.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지도층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고 나눔 운동에 참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 고액기부자의 모임으로 1억원 이상 기부 또는 약정할 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대구에서 2010년 이순근 윤누리대학약국 대표의 제1호 회원 가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회원은 총 3명이다.

대구 사랑모아통증의학과의원 백승희(47) 대표 원장이 16일 1억 원을 대구공동모금회에 기부하여 아너소사이어티 4호 회원에 등재된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

행복나눔공동체,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한사랑 마을 등에 후원해 왔지만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1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봉사하고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도 잘할 겁니다." 대구의 아너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 4호 회원인 백승희 사랑모아통증의학과의원 원장(49)의 노후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살겠다는 것. 그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 2012년 5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이 발단이였다. 당시 백 원장과 같이 테니스를 치면서 알게 된 대구시청의 한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을 제안했다. 당시 대구에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3명뿐인데, 백 원장이 1억 원을 기부해 4호 회원이 되면 어떨겠느냐고 했다. 당시 지역에선 아너소사이어티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때였다.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후 되레 나눔과 봉사에는 뜨게 됐죠" 소속인 장애인운동선수들 무료진료 늘리며 '인술' 펼쳐 달성뿐인 임시진료소 마련해 탈북민·외국인 근로자 치료... 노후계획 '봉사하는 삶' 정해 최근 복지재단 출범시키기도

"나누지 않고 재산만 불린다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 될 것... 기업 위주 기부도 활발해져야"

백 원장은 처음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되면서 기부하는 금액이 몇천만원인 줄 알았다. 나중에 금액이 1억원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지만, 선뜻 지역 사회를 위해 내놓기로 했다.

이전에도 봉사활동과 기부를 종종 했지만 정기적으로 하진 않았다. 대한적십자사, 죽전동 행복나눔 공동체,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복지시설에 한 달에 몇십만원씩 후원했고, 틈날 때마다 직원들과 함께 의료봉사단을 꾸려 복지시설을 찾아가다.

백 원장은 '의사가 돼서 병을 고치겠다' '노벨상을 받겠다'는 거창한 꿈보단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의사의 길을 걷게 됐다.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마취통증의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이런 의학 분야도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가 전공을 선택했을 당시, 우리나라에선 통증의학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백 원장은 "개원한 지 14년 6개월이 지났는데,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환자가 치유되는 것에 보람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백 원장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은 이후 그의 나눔활동의 기폭제가 됐다. 같은 해 백 원장은 대구시립희망원(달성군 화원읍)의 촉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나가기 시작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노숙인, 지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다. 안과, 치과, 내과 등에선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만 그의 전공 분야에서 무료 진료를 나가는 의

해체된 장수정 선수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그는 사랑모아병원 소속으로 경기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앞서 2013년 1월부터는 최두호 이중격투기 선수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병원에서 후원하고 있다. 백 원장은 "지난해 최두호 선수가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UFC 데뷔전에서 18초 만에 TKO승을 하고 우승 소감으로 '어게를 치료해준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했는데,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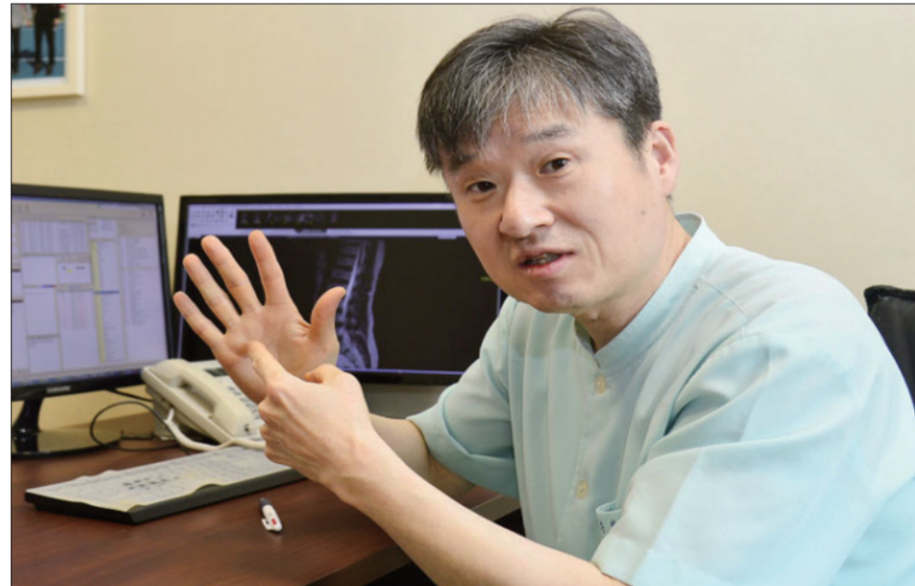
지난해 가을쯤 백 원장은 비영리 사회복지재단인 '자운재단'을 출범했다. 노후에도 재단을 통해 봉사활동, 기부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자운(慈雲)'은 불국사의 한 스님이 지어준 법호로 '자비로운 구름이 되어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아직 재단은 살을 찌우는 단계지만, 매년 5천만원을 소외계층, 운동선수, 사회예술 분야라는 세 가지 분야에 후원하겠다는 목표는 세웠다.

재단 설립 후 복지시설의 차량과 안마기를 교체해주는 등 작은 후원부터 시작하고 있다.

백 원장은 우리의 기부문화가 개선해야 할 점도 많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인식도 바뀌고 확산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점점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나눔과 봉사활동 없이는 사회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자신의 재산만 불리고 나누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재벌이나 기업이 존경받고 칭찬받기



사는 별로 없어 이들의 적추, 관철 통증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2년 전쯤부터는 불국사의 스님이 운영하는 노인 요양시설에도 한달에 한번 정도 의료 봉사를 나가고 있다.

이 요양시설은 간호사만 있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다. 또한 경찰관인 후배를 통해 달성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한달에 한번 경찰서에 임시 진료소를 차려놓고, 달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그는 "봉사활동을 한번 시작하니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내가 배운 의술로 치료가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뿌듯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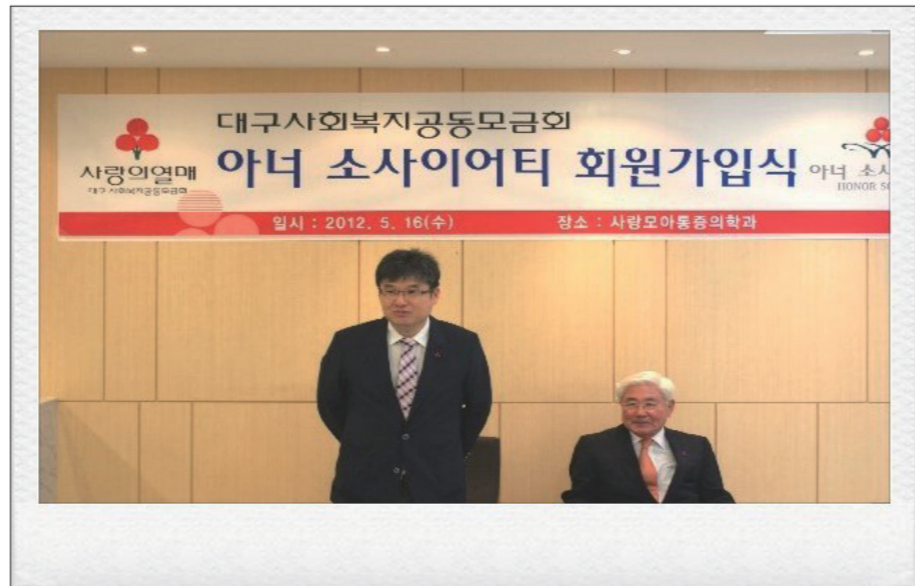
2013년 3월부터 대구시테니스 협회장을 맡고 있는 백 원장은 운동선수에 대한 지원에도 관심이 많다. 올해 소속 테니스 팀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기업 위주로 기부가 활발해져야 시민들도 기부문화에 동참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백 원장은 나눔 실천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의사인 자신이 가장 빛날 때가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기부 사실이 외부에 잘 알려져 있다보니 다른 목적이 있어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정치 등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며 "치료하다보니 수입이 생기고 그 수입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다보니 좋은 평판을 얻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의사라는 직업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웃었다.

박류석/대기자



서울시, 에콰도르 과야킬시에 '서울형 스마트시티' 정책 수출한다

서정협 권한대행-신시아 비데리 과야킬시장 온라인 '스마트시티 협력 업무협약'

서울시가 에콰도르 과야킬시에 '서울형 스마트시티' 정책을 수출한다. 과야킬시는 최대 상업도시이자 태평양 수출입의 무역 관문으로 에콰도르 정부가 지난 '19년 선정한 디지털 스마트시티 개발 계획 도시다.

서울시는 30일 오전 8시 '서울시-과야킬시 간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청 화상회의 스튜디오에서 신시아 비데리 히메네스 과야킬 시장은 에콰도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속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IT 기반 스마트시티 정책을 바탕으로 과야킬시의 치안, 교통 통합관제센터 구축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등 컨설팅 및 지원 향후 스마트 교육, 헬스 서비스 등으로 협력 범위 확대 과야킬시와 시 산하기관 공무원의 스마트도시 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협약식엔 주 에콰도르 이영근 대사, 코트라 김기중 중남미지역본부장, 양 도시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이번 서울형 스마트시티 정책 수출은 코트라 중남미 지역본부와 키토무역관의 제안, 과야킬시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코트라 지역본부와 무역관은 스마트시티 분야 한국기업들이 서울시와 함께 중남미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 수출을 제안했고 시는 코트라와 협력해 과야킬시 현지에서 디지털 시민시정, 교통정보센터 TOPIS 등 서울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소개했다. 이후 과야킬 시장이 서울시에 협력을 요청하면서 업무협약이 성사됐다. 과야킬시에 수출되는 서울형 스마트시티 정책은 양 도시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양 도시는 서로의 정책을 공유하고 과야킬 시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시는 과야킬시와 스마트시티 협력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야킬 시장은 무료 와이파이 원격교육 시민과 실시간 의사소통 및 정책결정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ITS 인프라 구축 스마트 재난 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스마트통합 솔루션 등의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과야킬시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교통·방범 중심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페루,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다른 도시들과의 교류·협력 사업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협약식 이후 양 도시 간 스마트시티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정책 웨비나'도 개최한다. 특히 에콰도르 등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관련 민간기업에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아 민관이 함께 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과야킬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정재수출사업단의 발표에 이어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과야킬시 : 주요 관심 분야인 교통, IT, 교육 현황 등을 발표한다.

서울시 : 스마트서울 인프라 플랫폼 S-Net 등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서울정책'과 스마트 교통플랫폼인 TOPIS, 미래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기반 자율주행 등 최첨단 교통 정책을 발표한다.

서울시교육청 :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된 서울형 원격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및 긴급돌봄 등 민관협력 지원책을 소개한다.

서울시정재수출사업단 : 향후 과야킬시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력 가능 방안 및 그간의 서울시 우수 정책 해외진출 사례를

구분	시간	프로그램
MOU 체결	08:00 - 08:30	개회 및 MOU 체결
	08:30 - 08:45	과야킬 스마트도시계획 및 현황 소개 -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서울 정책 - 교육적차혜소 등을 위한 서울 디지털 교육정책
정책 공유	08:45 - 09:25	- 서울 스마트 교통 정책 - 과야킬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서울시 협력방안
	09:25 - 09:35	질의 응답
	09:35 - 10:00	폐회

발표한다. 한편 서울시는 해외수요가 높은 교통, 스마트도시와 같은 우수 정책을 ODA 재원 등을 활용해 해외 도시와 공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외 34개국 60개 도시·기관에 8천여 원 규모의 85개 사업을 수출했다.

정책 컨설팅, 시스템 구축지원 등의 방식으로 해외사업을 기획·발굴해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7회 연속 전자정부 세계 1위의 글로벌 리더도시로서 최첨단 ICT 인프라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같은 핵심기술, 도시 행정을

접목해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모두 갖춘 '사람중심'의 스마트 시티로 거듭나고 있다. 나아가 세계 도시와 그 노하우를 나누는데도 앞장서고 있다"며 "에콰도르 과야킬시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스마트시티 모델,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시대 교육격차 해소 정책 등 서울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공공서비스를 공유하겠다. 한국 우수기업들의 에콰도르 진출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2020 인천국제디자인페어, 12월 3~6일 비대면 온라인 개최

'디자인으로 경험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인천' 주제로 사이버 전시관 개관

인천광역시와 인천의 대표적 디자인 행사인 인천국제디자인페어를 코로나19 시대를 반영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디자인기업협회, 인천산업디자인협회, 경기일보인천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실제 전시공간을 마련해 진행하는 기존의 행사와 달리 모든 전시관을 VR로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 없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며 VR 기기를 활용해 더욱 몰입도 높은 전시를 체험할 수 있다.

총 7차 개별관으로 구성된 인천국제디자인페어에는 볼거리와 유용한 정보가 가득하다. '디자인으로 경험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인천'이라는 주제에 맞게 인천과 관련된 콘텐츠로 주제관을 구성해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제40회 인천광역시 공예품대전이 사이버 전시의 형태도 공예관에 전시된다. 국내·외 디자이너와 교수들의 디자인 작품 46점이 국제 교류관에 전시되며 주변의 사회문제를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국내·외 디

자인 콘서트 공모전의 우수작품 전시가 공모전관에 구성되어 국내·외 디자이너부터 일반인까지의 생각을 고루 담은 전시가 구성된다.

인천 내 28개 디자인기업의 포트폴리오 전시가 기업관에, 인천 내 6개 대학의 학생 및 졸업생 작품 200점 이상이 대학관에 전시되며 지난 10월 제1회 인천리빙디자인페어에 전시되었던 인천디자인지원센터 홍보관이 VR로 재구성 되어 전시된다. 더 나아가 온라인을 통한 디자인 상담회 운영으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과 구인기업간의 매칭과 디자인 기업과 제조·서비스 기업간의 매칭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등을 목표로 디자인 상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 대학,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산·학·관의 연결을 통해 인천의 디자인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올해 인천국제디자인페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개최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생동감 못지 않은 좋은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고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성껏 준비한 콘텐츠를 전 세계 많은 분들이 마음껏 관람하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농경문화, 서민의 일상생활 생생한 민화로 만나요

동대문구는 동대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선농단역사문화관에서 오는 12월 5일부터 '민화로 보는 농경문화' 특별기획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동대문구 생생문화재-살아 숨 쉬는 선농단, 풍년을 기원하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서울 선농단의 역사적 가치인 농경문화와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린 생활화인 민화와 융합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한국의 전통 색인 오방색을 바탕으로 민화의 개념, 현대의 민화, 체험 공간 등 5개 영역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민화의 개념'에서는 민화의 유래와 의미, 염원을 알아보고 '농경문화와 민화'에서는 과거 생활의 근간이었던 농경문화가 예술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민화의 종류' 영역에서는 민화의 종류와 대표적인 민화 작품이 소개되며 '현대의 민화'에서는 현대 민화 작품, 현재의 민화 형태는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소개된다.

체험 공간에서는 관람객이 민화 도장을 이용해 나만의 민화를 찍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의 '현대의 민화' 영역은 동대문구 내 활동하는 민화 작가 박대숙, 손현주, 장서라, 장은숙, 허인수 등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

을 위해 이번 특별기획전의 개막식은 생략되며 단체 관람도 제한된다. 이외에도 전시 관람 입장 시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 관람 등 방역 수칙을 엄격 적용하며 전시를 진행한다. 구분호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선농단의 농경문화는 물론 서민들의 삶이 담긴 민화의 일상생활을 그린 생활화인 민화와 융합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한국의 전통 색인 오방색을 바탕으로 민화의 개념, 현대의 민화, 체험 공간 등 5개 영역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민화의 개념'에서는 민화의 유래와 의미, 염원을 알아보고 '농경문화와 민화'에서는 과거 생활의 근간이었던 농경문화가 예술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안전체험의 새로운 장을 열다... 온라인 서울안전한마당 개최

11월1일부터 생중계 콘텐츠는 행사홈페이지 및 유튜브 통해 '다시보기' 가능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시대에도 안전에는 거리두지 마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2020년 온라인 서울안전한마당'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서울안전한마당'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안전문화 축제로 매년 개최해 왔으며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울안전한마당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지난해까지 서울안전한마당은 여의도공원에서 3일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연10만 여명의 시민이 안전체험에 참여했다.

온라인 서울안전한마당 체험행사는 시간적, 거리적 제약으로 오프라인 체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시민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행사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2020년 온라인 서울안전한마당' 행사의 모든 프로그램은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또한 광장시장 등 시내 주요 11곳에 배치된 이동전광판 차창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본방송 이후에는 서울소방유튜브를 통해 '다시보기' 방식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개막식은 오후 2시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되는 코로나19 예방 영상을 시작으로 온라인으로 초대된 100여명의 시민과 서울시 주요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시민소통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초대된 시민 접속자 100여명은 사전에 배부된 안전퀴즈에 들어 있는 CPR 풍선을 활용해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인다. 개막식에서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완성해 나가는 7조각의 안전서울 화풍 맞추기를 통해 서울안전 다짐 세레모니가 펼쳐진다. '2020년 서울안전한마당' 개막 선언은 AI로 빛이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영상송출 시차' 명령을 내리고 이를 받은 로망이 영상송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행사가 개막된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서울안전한마당은 싱가포르, 몽골, 인도네시아 등 총 8개국 이홍영상 제작에 참여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내외서도 온라인으로

체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온라인 서울안전한마당'은 총 5개 분야 20여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화재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레저안전, 자연재해 및 감염병 대처요령 등이다. 20여개 프로그램은 10월 30일 오후 2시 개막식 이후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분야별로 화재안전은 화재사례와 통계분석을 통해 화재초기 시민행동요령, 대피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등이며 특히 화재안전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주택화재 시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한 취약한 계층에게 중요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생활안전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요령, 가정 내 안전사고 승강기, 반려견 관련 안전사고 예방요령 등이다. 교통안전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 차량 내에 갇혔을 때 안전하게 탈출하는 요령, 지하철이나 선박 내부에 고립되었을 때 탈출 요령 등이다. 레저안전은 등산안전, 캠핑, 최근 늘고 있는 차박캠핑, 안전한 물놀이 체험해보기 등이다. 자연재해 및 감염병은 최근 이상기후로 더 강해지고 더 잦아지는 태풍, 미세먼지, 폭염, 흑한 그리고 코로나19 시대 감염병 예방과 대처요령 등이다. 생방송 중간 중간에 재난 분야별 안전 골든벨 퀴즈쇼와 미션이 부여되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미션을 완성하거나 퀴즈풀이에 성공한 시청자에게는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 라이브 안전 골든벨 퀴즈쇼는 실시간 유튜브 접속자, 사전에 모집된 시민이 참여해 안전퀴즈 풀이,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부여한 돌발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 비대면 온라인 안전체험의 취지에 맞춰 유명 유튜브들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 엄홍길과 동행하며 들려주는 산행 이야기는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보를 제공해 준다. 전 국민의 조카로 통하는 푸지푸아TV의 푸지푸아가 들려주는 어린이 교통안전, 마이린TV의 마이린과 노래하

는 하림의 지하철 등 유형별 화재대피 체험이 온라인을 통해 집안에서도 가능하다. 꽃보다 패밀리와 1박을 함께 하면서 듣는 캠핑 등 레저안전 요령도 비대면 시대에 유용한 안전정보들이다. 원조 개통령으로 통하는 이용중 교수가 들려주는 반려견과 안전한 동행을 위한 안전정보, 전직 여성 특산품 출신인 강레이더와 함께 한강에 뛰어든 인명구조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운동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말왕은 2020년도 최강소방관에 선발된 소방관과 환관대결을 펼친다. 결과가 궁금하다면 분방을 사수하면 된다. 행사 중간에 '소방관들의 토크쇼'가 서울소방재난본부 옥상야외 무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소방관 토크쇼'에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에서 신입 소방관까지 5명여가 참여해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시민과 온라인 소통에 나선다. 한편 올해 2021년도 '몸짱소방관 희망나눔' 달력 판매 런칭 행사는 서울안전한마당 문화행사로 오후 3시10분부터 15분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몸짱소방관 달력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 오중석, 2018년 달력 판매 기부금으로 화상치료를 받고 있는 임이나, 몸짱소방관 2명이 참석한다. 또한 소방관들의 몸짱 소방관 도전 이야기, 몸짱소방관 달력 사업 수혜자의 영상편지 소개, 화재사고 이후 캘리그라피로 활동하면서 중증화상을 극복하고 있는 임이나씨는 직접 글씨를 써주며 몸짱소방관에게 선물한다. 2020년 온라인 서울안전한마당 행사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며 생방송 '서울시 유튜브'로 접속하면 된다. 신영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재사고 교통사고 산악사고 태풍 및 감염병 등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다른 재난에 대해 소홀히 할지 않도록 인기 유튜브와 함께 안전정보,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한 서울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나주시, 한난의 사업계획 임의변경에 제동, 시정명령 절차돌입

광주광역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한난의 무리한 사업추진 질타

지난 30일 '나주시 열병합 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됨에 따라 나주시는 성명서를 내고 나주 열병합 발전소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에게 입주계약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한난이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 4월 30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초 나주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발전설비가 설치돼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조치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난의 당초 계획은 목포, 순천, 나주에서 생산된 SRF를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재는 광주 SRF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계약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나주시는 만약 한난이 입주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발전소 가동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결국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함에 있어 '광주SRF'는 사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나주시는 성명서를 통해 그간 논란이 돼온 광주SRF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나주 열병합 발전소의 설치근거로 2009년 3월에 체결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는 "광주 SRF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2011년부터 광주SRF를 나주열병합 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2013년 나주시가 공문을 통해 광주 SRF반입 거부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에도 나주시를 SRF수요처로 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을 "광주광역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주시 입장은 "현재 나주 열병합 발전소의 갈등은 광주광역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한난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참극"이라는 것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SRF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발전과 혁신도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2만 시민여러

분과 함께 나주시 행정의 수장으로 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면서 향후 광주 SRF 반입을 둘러싼 확고한 거부사를 재확인했다.

향후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광주 SRF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돼 광주광역시와 한난의 입장 그리고 나주시와 나주시민의 입장이 서로 대립해 당분간 서로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난에서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광주SRF문제 및 LNG 전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나주시가 광주SRF 거부사를 분명히 하면서 광주 SRF를 연료로 하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 가동이 현실적으로 가능 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나주 빛가람동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광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 됐고 이를 두고 광주시와 한난, 그리고 나주시의 입장이 서로 대립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중앙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섞인 의견을 내놓았다.

김영안기자

창원시, 코로나 방역수칙 종합점검 추진단 구성해 특별점검 나서

29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전 행정력 동원 일제점검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첫날 전 행정력을 집중해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대대적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특별점검에서 165개 부서 직원 3,716명이 참여 21개 업종의 13,673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거리두기, 오후 9시 영업제한 준수 여부 등과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등에 대해 집중홍보활동도 펼쳤다.

점검 결과, 시는 대부분의 업소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일부 자리 띄우기 등이 이뤄지지 않거나,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지적 준수율 적극 당부했다.



시는 2단계 기간 중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 '빈틈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시민들에게 연말까지 모임 자제를 당부하는 '잠깐멈춤' 캠페인도 SNS, 반상회보, 현수막 등 각종 소통망을 활용해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지금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며 "다들 고통스럽고 지치겠지만, 조금 더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영업주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몽호기자

안동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다량배출현장 특별점검 실시

'20. 12. 1. ~ '21년 3월 31.까지 건설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안동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해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내년 3월 말까지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297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개소, 불법소각 현장 등 미세먼지 핵심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21년 1월부터는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집중 감시업무와 주민홍보를 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기 배출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단속활동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



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과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및 생활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점검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파주시, 운정신도시 주변 불법소각 야간단속 강화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일대를 중심으로 야간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 말까지 단속 및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겨울이 되자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타는 냄새 등의 악취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다. 시는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며 불법소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기상상황에 따라 주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농경지 및 공사현장, 사업장 등 불법 소각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자연부락 지역에도 폐기물을 함께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까지 받게 된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운정신도시 일대 불법소각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타는 냄새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전남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특별단속

내년 1월 15일까지...원목 무단이동 불법유통 중점

전라남도는 2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전라남도는 2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전라남도는 2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크기 1mm내외의 실갈이 생긴 선충이 고사목에 서식한 솔수염하늘소의 몸속으로 들어간 후 봄철 솔수염하늘소가 새순을

잡아먹기 위해 새로운 나무로 이동할 때 감염을 확산시키는 병이다. 최근 자연 확산보다는 고사목 이동 등에 따른 인위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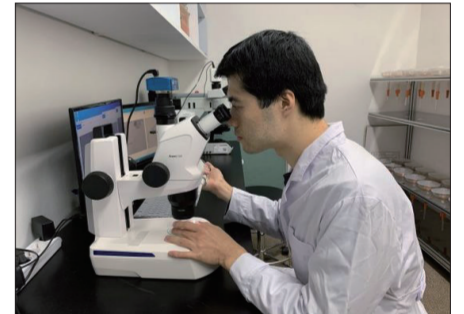
현재 도내 22개 시군중 12개 시군에서 재선충병이 발생, 전라남도는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고사목제거, 예방나무주사 등을 통한 재선충 방제에 중점 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시군 주요 도로변에 '소나무류 반출금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막기 위해 홍보 활동도 병행기로 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 반출로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된다.오득실 전라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선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반출금지구역 내 감염목 등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을 발견하는 즉시 지자체 산림부서 또는 전라남도 산림보전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안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발행시기 : '20.9.1.부터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관내 농협 방문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직장인 소득공제 30%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339-8822

박승원 광명시장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기후에너지 정책’ 주목

기후에너지센터,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등 민·관 거버넌스 구축

‘태양의 도시 광명,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을 정책과제로 출발한 민선 7기 광명시가 다양한 민·관 협력 기후대응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명시는 2018년 9월 기후에너지 전담부서인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했으며 올해 5월 중간 지원 조직인 기후에너지센터를 설치했다. 또한, 광명시 기후의병 양성을 위해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해 기후위기 대응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카페, 기후의병, 기후동아리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교육, 시민 체험형 사업 등으로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해 가고 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11월 25일 기후변화센터 주관으로 열린 ‘제10회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에서 지자체 부문 단독 수상 영예를 차지했으며 지역균형뉴딜 수도권 포럼에서 광명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광명시 첫 햇빛발전소 가동, 공공시설 유류부지 설치 확대 광명시는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햇빛발전소 1호기를 설치해 지난 7월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햇빛발전소는 광명형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광명시가 공공 부지를 제공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설치해 운영한다.

광명도시상 햇빛발전소는 연간 9만kw의 전력을 20~25년 동안 생산해 기존 발전시설 대비 연간 42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1만 4300그루

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어 기후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시는 광명도서관 햇빛발전소에 이어 하안도서관 옥상에도 81.9kw 규모의 햇빛발전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체육관 주차장을 비롯해 모든 공공시설 유류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형 넷-제로에너지카페 6곳 개소 또한 지난 7월 말 광명시에서 처음으로 넷-제로에너지카페가 문을 열었다. 마을 속 에너지 감축 거점 공간인 ‘광명형 넷-제로에너지카페’는 광남새마을금고북카페 광명사거리점과 새마을시장점, 자연드림카페, 까치카페, 크리에이티브과 광남새마을금고북카페 소하점 등 권역별로 조성되어 있다.

에너지카페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해 에너지 관련 서적 비치 기후위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에너지전환 수용가 발굴 및 조사 에너지 전환 캠페인 에너지 소외계층 모니터링 소동행사 참여 문화공연 진행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광명형 그린뉴딜 첫 사업, 광명 쿨루프사업 광명시는 광명형 그린뉴딜의 첫 사업인 ‘2020 함께 그린 광명쿨루프사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경로당 등 공공시설과 도시재생 시범지역 내 취약계층 주택 총 8,000㎡ 32곳에 쿨루프를 시공했다. 쿨루프는 2019년 광명시가 환경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옥상 지붕에 밝은 색 도료를 시공해 햇빛 반사율을 높이는 시공방법으로 햇빛이 반사되면 건물 내 침투하는 태양열이 시공 전보다 줄어들어 실내온



도가 약 3~10°C가량 저감되는 효과가 있어 냉방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된다. 지난 7월 조병래 환경부 장관은 광명시의 쿨루프사업 현장을 방문해 박승원 광명시장과 차열페인트를 함께 칠하고 기후행동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특히 올해 진행한 광명쿨루프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새터마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주민협의체와 함께 했다는데 더욱 의미가 크다.

그린뉴딜 TF팀 구성, 2050년 탄소중립 목표 광명형 그린뉴딜 3개 분야 55개 정책 추진 광명시는 각 관련부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린뉴딜 TF를 구성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한 광명형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광명형 그린뉴딜 정책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29건,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4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22건 등 총 3개 분야 55개 과제를 선정했다. 광명시는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

성하고 지역 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며 각종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그린뉴딜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광명시는 별 불일 있는 10·10·10 소동 행사, 저탄소 생활 실천 캠페인, 에너지 절약 마을 축제, 광명 별빛지기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민·관 협력 기후변화 대응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기후에너지센터, 기후관련 동아리, 넷제로카페, 에너지협동조합 등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과 함께 기후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민 길을 가려면 반드시 함께 가야한다” 말처럼 특히 기후 대응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의 실천이 필요

하다. 미래세대가 살기 좋은 자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후 위기 해결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전순희·최정부기자

2021. 파주사랑 희망나눔 온택트 모금방송 추진

QR코드로 간편하게 기부하세요

파주시는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부터 40분 간 파주시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1. 파주사랑 희망나눔 온택트 모금’ 방송을 송출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해 생방송 모금과 나눔 바자회 등, 기부 참여의 장으로 활용하던 행사장 운영도 전면 취소하고 비대면 모금 방식으로 대체 추진한다.

사전에 촬영된 각 읍면동 모금 현장, 기부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생생한 인터뷰, 금촌역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기부계단 이용자의 모습 등이 방송을 통해 송출되며 2020년도 파주시 기부자명 또는 법인명을 자막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아파트 앞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모금방송 홍보 배너와 안내문을 비치해 시민들이 온라인 송금이나 QR 코드를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R코드 기부방법은 스마트폰으로

홍보물 등에 인쇄된 QR코드를 촬영하면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페이지로 연결돼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도 ‘고사리손 사랑의 저금통 모으기’에 참여하고 홍보용 엽서를 제작·배포해 QR코드나 온라인 송금으로 기부 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적은 뒤 회신하도록 하는 기부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모금된 성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되며 파주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겨울은 코로나19 확산과 겹쳐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춥고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며 “파주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 모두가 따뜻한 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여주시,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우수사례 공모전 기관표창 수상

금은모래강변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여주시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기관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2020년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우수사례 공모전은 해당사업을 추진 중인 23개 시군에 응모자격이 주어졌고 심사 항목은 주민참여도, 놀이터의 창의성, 모험성, 기능성, 안전성, 조성완료 후 활용도에 대한 평가로 수상기관은 여주시 등 4개 시군이다. 여주시는 연양동 8번지 일원 금은모래강변공원 내에 조성한 아이누리놀이터에 대해 공간의 단절이 없는 연대와 소통의 공간, 호기심과 모험심을 부르는 입체적인 놀이 공간, 안전성이 입증된 재료를 이용

한 안전성이 보장된 공간,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주된 테마로 삼아 이번 공모전에 지원했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15개소의 놀이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세대구성원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 공간과의 경계에 턱을 없앤 무장애동선 도입으로 유아차, 휠체어 등의 무장애 보행이 가능하다는 점, 여주 도자기를 모티브로 한 입체적인 놀이공간을 조성했다는 점 등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여주시는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과 위생적인 관리로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시 만들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용기자



수원시 환경교육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체험한다

수원시, 12월 5일 오전 11시 제8회 환경교육 한마당 온라인 개최

수원시의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제8회 수원 환경교육 한마당이 12월 5일 오전 11시부터 온라인으로 열린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YWCA·수원환경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씩~ 쓰리go 참여하go 즐기go 배우go’를 슬로건으로 환경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 환경교육 갤러리, 온택트 박람회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제 강연을 하는 차수철 광덕산환경교육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환경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주제 강연 후 수원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환경교육 갤러리’ 영상이 공개된다.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된 수원시와 관내 환경

교육 기관·단체에서 진행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온택트 박람회’는 어린이·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한 ‘생태체험: 가을숲에서 함께 놀아요’, ‘떨벌이 들려주는 기후변화 이야기’, ‘환경골든벨, 유퀴즈? 예스’ 등 1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제 강연과 환경교육 갤러리 영상은 행사 당일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온택트 박람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기관의 유튜브 채널·네이버 밴드 등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별 참가자는 수원환경교육네트워크 카페에서 모집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이후 환경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성용기자

제8회 2020 수원 환경교육 한마당

2020. 12. 5. (토) 11:00 - 16:00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온라인

PART 1 11:00-12:00	
개봉식	11:00-11:20 / 인사말씀, 축사, 표창
강연	11:20-12:00 / 차수철 센터장 광덕산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갤러리	개봉식 전, 강연 후 / 수원시 환경교육 홍보 영상

PART 2 14:00-16:00	
온택트 박람회	기관·단체별 온라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영상	온택트 박람회 / 11월30일(일)부터 순차적 개봉(온라인)

문의 | 수원시환경정책과 031-228-2456 / 수원YWCA 031-273-8311

감동양주
신성장·새지평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수원시 시민 중심 행정 '대통령상 행정' 결실로

적극행정/지속가능발전/디자인/화장실 등 대회 및 공모전 대상 소식 잇따라

수원시에 경쟁자가 잇따르고 있다. 권위를 인정받는 전국 단위 규모의 대회와 공모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 혹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병 확산으로 올해는 다양한 시정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투자 성격의 정책들이 빛을 발했다. 응급한 시민을 1초라도 빨리 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지난달 18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대통령상을 받았다.

도록 다른 지자체와도 관련 기술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1월 19일 환경부가 주최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제22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의 대통령상은 '마을이 함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수원시 공유냉장고'가 선정됐다. 수원시의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냉장고다. 먹거리 자원을 순환시켜 식량 낭비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먹거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이디어를 내 시작한 사업이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협력으로 탄생한 1호 공유냉장고는 2018년 1월 18일 권선구 고색동에 설치됐다.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의 꽃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구급차에 설치된 앱을 통해 교차로의 신호를 자동 제어하는 '센터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구급차량의 위치가 GPS로 추적돼 병원까지 최단 거리를 최단 시간에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현장방식'은 교차로별로 우선 신호를 작동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1천 개 넘는 수원시의 모든 교차로에 현장방식으로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려면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했다.

이 냉장고에는 서호중학교 학생들이 먹거리를 기부하거나 인근 대형마트가 동참하는 등 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운영으로 반향을 이끌었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앱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것을 보고 이를 활용한 방법을 고민하던 이병호 주무관을 주축으로 2018년 기본계획 수립 후 지난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 개발에는 4억원이 들었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진행된 사업평가에서 평균 통행시간이 56.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시험 운행에서도 수원시 서남쪽 끝부분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까지 11km를 9분 20초 만에 운행하는 결과가 나왔다. 평일 낮 시간대라면 25~30분이 걸리는 거리다.

이후 현재까지 총 16개의 공유냉장고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동네 커피숍과 생협, 사회복지관, 음식점, 학교, 아파트 경비실 옆, 자활센터, 로컬푸드직거래매장 등에 자리를 잡고 노인과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과 먹거리와 재료를 나눈다. 특히 공유냉장고 인근 주민들이 직접 관리자 역할을 하고 이용함으로써 '먹거리 거버넌스'라는 특징이 발현됐다. 덕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유기적인 먹거리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신뢰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펼친 공유냉장고는 올해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이라는 큰 결실을 맺었다.

수원을 관할하는 수원소방서와 수원남부소방서에 각 1대씩의 구급차량에 시스템이 설치됐고 이를 이용해 주당 평균 9건가량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고안해 적극행정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병호 주무관은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

공공시설물에 표준화된 디자인이 보급됐고 수원시 내 보도블록의 패턴까지 통일감을 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특히 2018년부터는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건축물과 시설물 심의 단계에서 디자인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디자인 관련 조례와 규정을 만들고 디자인기획관 도입 및 도시디자인단 구성 등 디자인 관련 조직을 강화해 시정 전반에 디자인이 녹아들 수 있도록 다짐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수원시가 개발해 출원한 디자인이 24건에 이르며 사업 부서의 디자인에 대한 자문과 협의도 더욱 활발해지면서 행정체계에 디자인경영이 조화를 이루면서 올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관계자는 "수원시가 갖추게 된 디자인 관련 조례와 조직 등의 기반을 바탕으로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해 각종 개발사업에 디자인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10월 30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주관한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미술관 옆 화장실'은 수원시미술관 바로 옆에 미술관을 닮은 외관이 눈에 띄는 화장실이다.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외관은 보편적인 화장실로 느껴지지



양을 정도로 세련된 모습이다. 내부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공간 배치와 구성, 영유아 맞춤형 기구와 시설을 갖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가 대동한 수원시가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의 대상을 받은 것은 세 번째다. 1999년 대상을 받은 반딧불이화장실은 유리천장으로 따스한 햇빛이 가득한 중앙 홀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고 날씨와 수원시 주요 정책 등 최신 정보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스마트 미러'를 갖춘 도서관 같은 화장실이다. 또 2015년 광고중앙공원화장실은 에너지절약형 생태화장실로 태양광시스템과 물 재이용시설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3번의 대상을 포함해 국무총리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 등 수원시가 수상한 화장실은 26개에 달한다. 수원시는 화장실 문화 선도도시다. 민선 3기 수원시장을 지낸 '미스터 토일렛' 고 심재덕 초대회장의 제안으로 창립한 세계화장실협회의 사무국 소재지이자 2014년부터 연태영 수원시장이 협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연태영 수원시장은 잇따른 수상 소식에 "시민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땀 흘린 시간이 하나씩 빛을 발하고 있는 듯해 뿌듯하다"며 "사람 존중, 사람이 반가운 도시"를 만드는 일에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달라"고 SNS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이승을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와 건강' 건강도시 열린토론회 개최

시흥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건강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시청 늑내홀에서 전문가, 공무원, 시민이 함께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와 건강' 건강도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감염병과 도시환경의 상관관계를 짚어보고 도시와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도시 계획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관련 전문가 3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 시민과 함께하는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발표는 서울연구원 손창우 도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도시 뉴패러다임'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강병준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계획의 고민' 경기연구원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의 '건강도시를 위한 건고 싶은 도시교통환경 만들기'가 진행된다. 이어 인하대학교 변병설 교수

가 좌장을 맡아 발제자 3명, 전문가 패널 3명, 시민, KHCP 회원도시 관련 공무원 등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하는 등 도시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아래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현장 참여한다. 토론회 전 과정은 시흥시청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되며 유튜브 참석자들도 질의가 가능하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기후 변화와 도시의 구조적 설계' 등 도시 환경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담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구분	일정	내용
개회식	14:00-14:10	토론회 개최 개회인사: 임병택(시흥시장)
주제 발표	14:10-15:1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도시 뉴패러다임 - 손창우(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계획의 고민 - 강병준(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강도시를 위한 건고 싶은 도시교통환경 만들기 - 지우석(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휴식	15:10-15:20	Break Time
중간토론 및 질의응답	15:20-15:50	좌장: 변병설(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패널: 강태환(국토연구원 국가정책발전지원센터 소장) - 이상태(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강명현(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폐회식	15:50-16:00	열린토론회 폐회

프로그램

일시 2020. 12. 8.(화) 14:00~16:00
장소 시흥시청 늑내홀
현장참여 신청 시흥시 건강도시과로 사전신청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일 현장 참석인원은 50명 이내로 제한되며, 시흥시청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예정
문의 시흥시 건강도시과 (☎031-310-5867 / zeunjin@korea.kr)

유튜브 생중계 예정 (14시 시작)
유튜브에서 '시흥시청'을 검색해주세요.



부산시, '제5회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 개최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제표준화'로 열어갈 새로운 미래

부산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3일 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치제한 해양플랜트 산업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벡스코, 경연제작, 코트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키멕스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행사에는 빅3 조선소를 비롯한 주요 기자재와 설비업체 등이 참여하며 기존 전시회와 달리 콘퍼런스에 무게를 두고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변화와 미래 먹거리로서 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되짚어 보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과 지역전과 우려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2단계에 준하는 전시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 내 4㎡당 1명으로 참석인원을 통제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를 운영한다. 행사장 내 정기적인 분무소독을 비롯해 마스크 미착용 참관객에 대한 퇴장 조치는 물론, 전시 부스 간 통로 간격 확대, 열 감지 카메라 등을 활용한 이중 점검 등 철저한 방역 조치로 전시 참가자와 참관객의 안전을 지킨다. 전시회는 올해 5회째이며 140개 기업 150개 부스 규모로 개최된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조선 3사는 물론 선보공업 등 부산 소재 수주 기업들도 함께 자리를 빛낸다. 이번 전시회는 해양플랜트 산업의 장기 침체로 많은 국내 기자재업체들의 관심이 친환경 선박 분야에 편중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플랜트 산업에 관심을 환류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국내 해양플랜트 기자재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해양플랜트 산업이 재개되더라도 지금까지를 국내 기자재 저변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국내 조

선소도 대의 경쟁력 약화로 과거의 어려움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공감한 대형 조선사도 모두 참여해 해양플랜트 기자재 기업들과 더불어 한국 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모색한다. 또한, 동시에 개최되는 '2020 국제해양플랜트 기술 콘퍼런스'는 '저유가 시대의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중심으로 개최된다. 올해 저유가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8년과 동일한 규모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리며 특별 세션, 2개 기조연설과 패널 토론, 8개 주제 총 34개의 주제발표로 이어진다. 특히 세계 3대 가스산업 행사 중의 하나인 '세계가스총회'를 주최하는 국제가스연맹의 루이스 베르트랑 라페카스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에 참여해 '가스산업의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5대 선급사인 ABS에서는 '해양플랜트 산업의 디지털 전환, 미래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를 통해 해양플랜트 운영 및 유지보수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적용과 장점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 패널 토론에서는 '해양 산업의 미래, 한국 EPC 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삼성중공업 김준철 부사장이 좌장으로 나선다. 패널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참가해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논의한다.

각 세션에서는 해양플랜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디지털화, 스마트 건조, 경쟁력 강화방안, 해체산업' 등과 관련된 주제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올해 콘퍼런스에서 주목할 점은 국내 조선 3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브라질의 부유식 산지장차역설비 프로젝트에 대한 세션이다.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의 FPSO 신규 발주 상황을 고려해 기술 콘퍼런스에서 페트로브라스 Buzios FPSO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페트로브라스의 과거, 현재, 미래 FPSO 프로젝트에 대



해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브라질 광업에너지부 산하 석유·천연가스·바이오에너지국에서 '팬데믹 전후 운영적 안전 점검'이라는 주제로 브라질 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별 세션에서는 지난 6월 빅 3 조선소와 LNG 운반선 100척 발주 업무협약을 체결한 카타르 국영석유공사의 야흐마드 사이드 알 아무디 표창개발부 부장을 특별연사로 초청해, 향후 10년간의 카타르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3일 차 콘퍼런스는 후원 세션으로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75차 현존선 온실가스 저감 대책 결정 설명회를 화상 토론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선급과 현대글로벌 서비스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송출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저유가 지속과 조선·해양 산업의 침체라는 어려움 속에서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며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판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산청군수 시정연설 이재근 산청군수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

엑스포 준비·등의보검촌 케이블카 설치

이재근 산청군수가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1일 제271회 산청군의 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5대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2021년 5대 전략목표는 한방향노화 산업의 지속 발전 품격있는 문화체육관광시대 구현 풍요로운 농촌 건설 행복을 여는 따뜻한 복지 실현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한방향노화 산업의 지속 발전 분야에서는 항노화 웰니스의 메가 등의보검촌의 관광자원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왕산케이블카 설치와 특리지구 개발사업, 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한 약초산업 고부가가치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같은 사업들을 바탕으로 제2회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로 품격 있는 문화체육관광시대 구현 분야에서는 남야예담촌 재정비사업, 중산관광지 활성화사업, 황매산 탐방지원센터 건립 등 기존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을 추진, 체류형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농업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급속한 온라인화에 맞춰 산엔정소 팜플 등을 통해 농특산물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에 나서는 한편 노

동력과 인건비 개선을 위해 농업용 드론조종인력 양성을 실시한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교육과 학관을 건립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꽃감과 딸기, 사과, 쌀 등의 명품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분야는 산엔정복지관 분관 신축과 장애인회관 건립으로 노인·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확대한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영유아 복지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과 더불어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 LH공공임대주택사업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산청군은 내년도 군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50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588억원, 특별회계는 424억원이다. 이재근 군수는 "올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민생경제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산청한방약초축제는 온라인축제로는 새로운 모델 도입과 축제영역 확대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 모든 성과는 군의회와 집행기관의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충분한 검토와 꼼꼼한 재정운영으로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힘써 말했다.

송인용기자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코로나시대 의생명·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앞장선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은 미래 성장산업인 세포유전자치료제 의약품분야, 전자약, 첨단 의료용품, 재활의료기기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강소특구 취지에 발맞추어 신사업을 도출하고 있다. 지난 10월 특구내, ㈜대우제약 플랫폼과 자회사인 ㈜아피셀테라퓨틱스를 유치한 만큼, 동남권 대학·병원·연구기관과 함께 '융복합 R&D 인프라와 액셀러레이팅'으로 제3세대 세포·유전자치료제 선도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첨단 K-세포 유전자 치료제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기획한다.

세부사업으로는 첨단기술 R&D센터 건립, 사업화/실용화 생산시설구축, 생태계 조성계획을 수립하며 임상/허가/생산 연계프로그램, 경남 김해 전용펀드 300억원규모 조성, 스타

트업 육성 엑셀러레이팅, 바이오 의약품 전문인력 프로그램 운영, 대응제약 DIC센터 - 김해클러스터 Business Express 구축으로 특구 내 창업벤처기업들이 대응제약의 오픈노베이션센터/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한 혁신성장을 유도한다. 또한, 정부에서 차세대 미래 의약품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자약'분야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5월 전자약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2022년도 전자약R&D센터건립을 목표로 전기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인제대, 서울대학교와 함께 사업화와 기반구축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도 신의료분야로 각광받는 만큼, 우리기업들의 전자약분야 기술고도화가 되도록 산학연관협력 네트워크를 추진한다. 재단은 2021년부터 본격화하는 산업부 스

마트특성과 기반구축사업이 가장 눈에 띈다. 본 사업은 기계, 소재부품 등 기존 경남 주력 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고부가 첨단 의료기기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통산업 기업들의 업종전환을 지원하고 플랫폼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경남에는 의료기기 시험평가 기관이 없어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어 지역 의생명 기업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재단은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 내 의료시장의 25%를 차지하는 첨단 의료용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자약분야 연구개발도 개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도에만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 선

정되어 국비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지역 의생명기업과 연계해 의료용 유착 방지 필름의 제품화를 위해 '전자비에 의한 가공상태를 정량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 중이며 이 기술은 다양한 영역에 쓰이는 의료용 필름의 제품판매와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해결에 활용도가 높게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단은 3년 전부터 정밀의료용 육성하기 위해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과 공동 설립한 김해 - 하버드 바이오 이미징 센터를 통해 7개의 SCI 논문, 특허출원 3건을 완료했다. 오는 12월 중 지역 의생명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버드의 수준 높은 실시간 영상유도 광학 영상 시스템 기술을 이전해, 우리 기업들에게 첨단기술을

남궁영기기자

경남관광 브랜드 슬로건 'Do Go Do Go Gyeongnam' 선정

향후 통합상표 이미지 제작해 각종 경남관광 홍보에 활용

경남남도 경남관광 대표 상표구호로 'Do go Do go Gyeongnam'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경남관광만의 특징과 매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구호를 개발해 다각적인 홍보 판촉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총 517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경남도는 이 중 1차 전문가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8편의 작품을 선정했으며 도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최우수 1편, 우수 1편, 가작 6편으로 수상자를 확정했다.

수상작품은 최우수상에는 'Do Go Do Go Gyeongnam', 우수상에는 'ENJOY Gyeongnam'이 선정됐으며 가작에는 'High five Gyeongnam', 'DREAM Gyeongnam', 'TASTY Gyeongnam', 'Be-course Gyeongnam', 'Let's SWEET', 'Search for DREAM'이 결정됐다.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김성구씨의 'Do Go Do Go Gyeongnam'은 조동



사 DO 강조효과 '~에 가다'는 GO라는 영단어로 '꼭 방문해야 하는 경남'이라는 의미와 '두고두고'라는 두 개 영단어 발음을 활용해 '두고두고 오랫동안 방문하고 싶은 경남'이란 의미를 표현했다. 특히 '또 오고 싶은 경남'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해 간결하고 친근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도민설문조사에서도 최고점을 받았다. 또한 구호를 뒷받침하는 의미로 천혜의 자연환경, 역사·문화재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가득 찬 경남이란 '두고두고 보고', 지역별 특산물과 토속적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경남 '두고두고 먹고', 사시사철 이어지는 특화 축제와 각종 체험거리가 가득한 경남 '두고두고 즐기고',

바쁘고 지친 일상을 벗어나 힐링이 되어 주는 경남 '두고두고 쉬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경남 '두고두고 느끼고'라는 뜻도 담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구호를 바탕으로 앞으로 통합상표 이미지 디자인을 제작해 각종 경남관광 홍보물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철 경남도 관광진흥과장은 "경남관광의 매력을 표현하기 위해 처음으로 상표를 개발했다"며 "앞으로 개발될 통합상표 이미지를 활용해 한번 오면 또 오고 싶은 경남관광 상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며 공모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송인용기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까지 달리게 만들자

영천의 20년을 앞당길 현안, 시민들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최기문 영천시장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까지 연장을 위해 분주히 뛰고 있다.

지난달 30일에 최 시장이 국회로 달려가 유후덕 기획재정부위원장을 만나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까지 연장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도움을 청했다. 이어 이만희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마공원까지 연장은 영천의 미래가 달린 현안임으로 내년도 국회 확보와 함께 끝까지 힘을 모아 함께하기로 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까지 연장 반영은 2023년 준공예정인 하안역에서 금호까지 5km 구간이며 사업비 2,052억원이 소요되는 국가 기반사업으로 기획재정부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영천 금호일대는 1만명 규모 신도시와 금호일산산업단지 공영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지난 달 9일 영천 경마공원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2024년 9월 개장 시, 연 200



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돼,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영천시민들은 대구도시철도가 금호까지 연장될 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금호역세권 개발로 신도시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 경마공원역 연장 반영 여부에 관심이 큰 상황이다. 최기문 시장은 "모든 시민 분들이 잘 아시시피 지역현안

중 최우선 과제는 바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이 반영되는 것이다"며 "영천발전의 20년을 앞당기는 핵심 사업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어르신들의 새 보금자리”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착공

12월 착공,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

남원시가 남원동부노인복지관 건립공사를 착공한다.

금동에 소재한 현재의 남원시노인복지관은 그동안 남원시 어르신에게 취미활동,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남원시 어르신복지서비스 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매년 증가하고 늘어남에 따라 공간이 협소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따라 시는 남원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을 결정, 총9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남원시 고창동 66-4번지 일원 4,18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996.36㎡ 규모로 사무실, 강당, 식당,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을 구성, 건립하기로 했다.특히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남원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한 결과, 건축부지확보, 설계공모, 제반 행정 절차 이행 등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치고 올해 1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노인복지관이 준공되면 향후 남원시 동부 지역 어르신들이 경로식당 이용, 노인 취미교실, 건강교실, 운동교실 등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노년기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한주 남원시장은 “남원동부노

인복지관 건립은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은 남원시 도동동, 향교동 지역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이번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 어르신이 살기 좋은 남원이 되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탄력

새만금사업법 등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좋은 새만금지역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립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됐다.먼저,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새만금개발청장이 스마트그린 산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청장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에게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와 함께 새만금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와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또한, 새만금사업법과 함께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새만금에 조성할 스마트그린산단의 개념을 정의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 및 지원 근거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스마트그린 산단을

'중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정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도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현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지역에 스마트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조성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만금사업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백세인생” 완주군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

완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이달 말까지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백세 기거유상 한걸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거유상이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항상 생활에 일정함이 있게 하라는 뜻으로 즉, 몸을 적절히 움직이고 올바른 기거 습관과 규칙적인 일상생활 활동으로 건강을 지키고 장수

하기 위한 한의약 양생 방법의 일종이다.이 프로그램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우선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안부 문기와 건강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건강백세 꾸러미 제공, 동의보감-안마도인 체조 포스터 게시, 한의약 양생법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완주군은 한의약 비대면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노인의 여가활동과 건강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노년기의 다

양한 건강문제를 한의약 뿐만 아니라 구강, 재활사업 등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 노인건강관리를 진행한다.라순정 완주군 보건소장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어르신의 건강 챙기기와 따뜻한 겨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백세를 위한 작은 발판이 되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진안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확대 운영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 대응과 농작물 보호”

진안군과 진안경찰서에서는 야생멧돼지에 의한 지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군에 따르면 지난 8월초부터 운영한 하반기 피해방지단 활동이 11월말로 종료되었으나 경기 북부와 강원도 지역내 계속해서 아프

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어 지속적인 멧돼지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에 한해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주력하기 위해 사전 진안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제 대응과 함께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상호간 뜻을 같이 하고 인원 또한 46명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진안군은 2년 연속 수렵장 개장을 실시했으며 올해 상·하반기 피해방지단 활동으로 야생멧돼지 700마리를 비롯 고라니 2천300여마리를 포획한바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 지속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정적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도 주민들께서도 안전을 위해 입산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종철/기자

익산시, 아동·청소년 자살률 감축·정서 지원 힘써

익산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아동 청소년 자살률 감축과 정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해 학교, 유관기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교사, 일반시민, 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지킴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생정서 행동 특성검사 결과 자살 문제로 의뢰된 청소년 61명에 대한 심층사정평가 후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를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지내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랑해 마음건강카드'를 전달해 아동청소년 등록회원,가족들의 신체건강과 정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자살고위험군 지역 중점으로 생명사랑캠페인, 찾아가는 행복이동상담소 운영, 아파트 내 전단지 배포, 자살예방상담전화, 홍보현수막 거치 등 자살예방 인식개선사업과 자살예방 및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지쳐가는 시기

이다”며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자살이 고 미래이다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승호 센터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마음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울감 및 자살사고를 보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선수/기자

고창군, 온택트 취업 박람회 개최.“고용시장에 새바람 불어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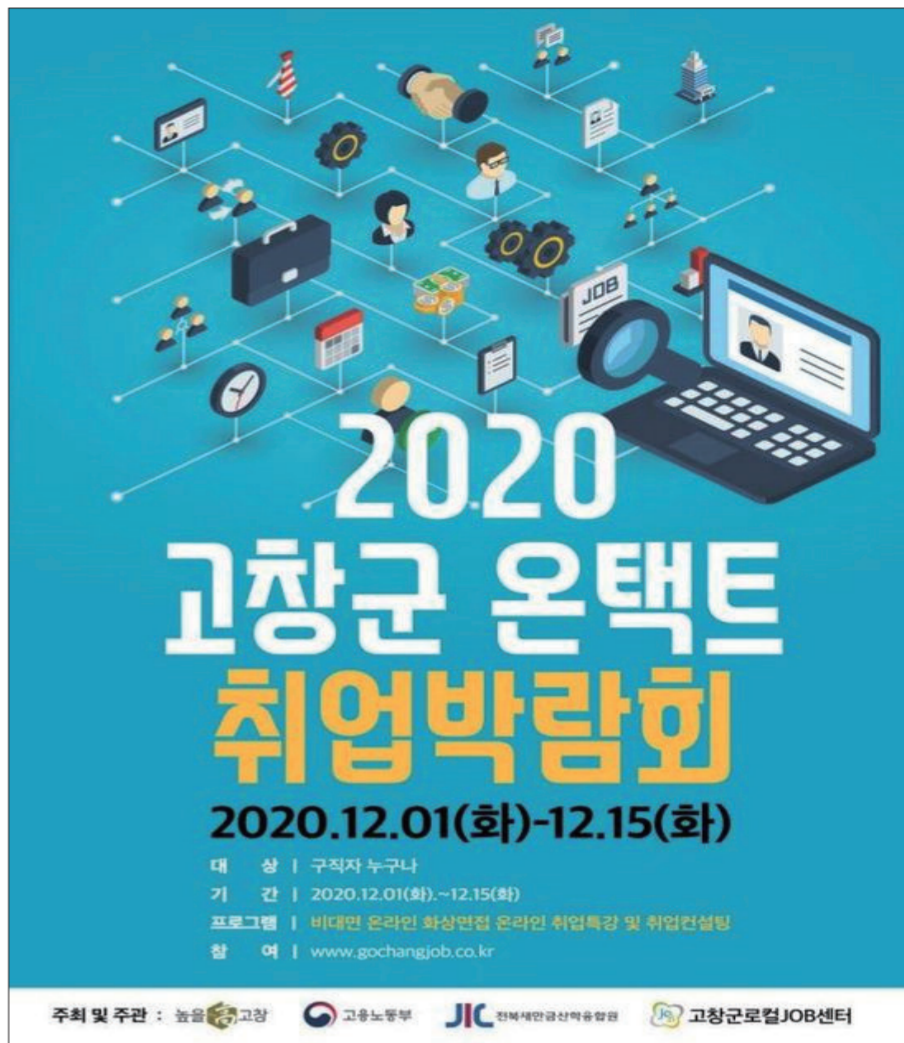
15일까지 고창군내 20여개 기업 참여. 100여명 채용 나서

‘일자리 정책 우수기관’ 전북 고창군이 군 단위 최초 비대면 방식의 취업박람회를 시도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5일까지 지역 20여개 우수기업과 함께하는 ‘2020고창군 온택트 취업박람회’를 연다.온택트는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에 온라인 연결이라는 개념이 더해진 뜻이다.

기존 채용박람회는 넓은 공간에 수개 또는 수십개의 기업부스가 나열되어 있고 구직자들이 각 부스를 돌아다니며 채용정보를 얻고 아예 현장면접을 보기도 한다.

반면 ‘온택트 채용박람회’는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행사다 보니 모니터 앞에서 앉아서 자신이 원하는 취업분야를 찾아가 정보를 획득하고 비대면 면접교육도 받을 수 있다.대충고 면접관에게 물어보기 어려운 급여, 복리후생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 등 구직자 입장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많은 장점이 있다.취업박람회는 포털사이트에서 ‘고창군 온택트 취업박람회’를 검색하거나, 홈페이지 주소 입력해 이용할 수 있다.

구직희망자는 해당 기업 채용영상을 시청 후 온라인을 통해 채용지원을 바로 할 수도 있다.이번 박람회에선 ‘상하농원’, ‘연경전자’, ‘웰러비엔에프’ 등 식품가공과 제조업 등 20개 업체가 참여해 100



여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온라인 취업특강을 비롯해 홈페이지와 취업박람회 참여자 중 ‘페이스북 공유이벤트’, ‘컨설팅 참여자 이벤트’, ‘이력서 제출 참여자 이벤트’, ‘면접 참여자 이벤트’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유기상 고

창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과 구직자들이 ‘온택트 취업박람회’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과 채용으로 이어져 지역 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지식 협동조합으로 평생학습 새판 짜자”

시, 1일 코로나 시대 평생학습 활성화 위한 ‘평생학습 새판짜기’ 포럼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

전주시 평생교육의 새 판을 짜기 위해 평생교육 기관들의 ‘지식 협동조합’ 결성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주장들이 나왔다.

전주시는 1일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코로나19 시대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럼인 ‘평생학습 새판짜기’를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평생학습 환경을 어떻게 새로 고쳐나가야 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조강연에 나선 최돈민 상지대학교 교수는 서울시 노원구 평생학습마을과 영국, 일본, 호주 등의 사례를 차례로 소개하면서 지역의 빈 공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연결하는 평생학습마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영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연구개발특임센터장은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생교육과 지역의 연계 주인의 학습비 지원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 평생교육 네트워크 및 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홍기빈 전한사회연구소장은 “대학-도서관-연구소 등 자원을 연계 하도록 이들 스스로 가능한 시간과 조건에 교육과 수련에 참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들이 ‘지식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지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은 “날뛰는 소를 마침내 길들이는 능숙한 카우보이처럼 시의 적절한 대응으로 팬데믹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며 ‘COWBOY HERO’라는 열 가지 키워드를 통해 다양한 전략을 설명했다.

권인택 한국평생교육학회장을 좌장으로 임영희 남부대학교 교수와 전하영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장, 박선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실장의 지

정토론포 진행했다.이후 화상회의 앱인 줌과 유튜브를 통해 종합토론펈터 연구위원은 “날뛰는 소를 마침내 길들이는 능숙한 카우보이처럼 시의 적절한 대응으로 팬데믹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며 ‘COWBOY HERO’라는 열 가지 키워드를 통해 다양한 전략을 설명했다.

김승일/기자

내년에 또 만나요 ‘2020년 온라인 김제 문화재 야행’ 성료

전북 김제시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2020년 김제 문화재 야행’이 코로나19의 제약 속에서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홈페이지 사전접수를 통한 문화재 복원가 양반 증서 만들기 등의 콘텐츠는 400여 건의 수량이 하루 만에 마감되는 등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였고 랜선 김제 사포 부인 행차 김제 갈래 찰면지 등 SNS를 활용한 연계콘텐츠도 참가자들의 관심과 김제의 문화재가 어우러져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특히 역사 유튜브가 들려주는 김제 문화재 이야기와 알송달송 김제

문화재 퀴즈쇼는 김제의 역사를 배워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호평을 받았고 김제 무형문화재 공예품 온라인 경매는 김제 명인들의 작품을 통해 지역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박준배 김제시장은 2020 온라인 김제 문화재 야행을 통해‘우리 지역 문화재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김제문화재야행’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 생생했던 감동과 김제 문화재의 맛을 언제든지 동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김현태/기자



'완도 전복거리' 2020 전국 우수 외식거리 선정

농식품부 주관, 제3회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국내 대표 음식특화거리인 완도전복거리가 2020년 전국 우수 외식거리에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역 특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등 외식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제3회 전국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에서 완도 전복거리가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 외식거리는 거리 경쟁력, 우수 식재료 사용, 서비스 및 환경·위생관리 분야에 대한 서류 평가, 발표평가, 고객 만족도 및 현장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는 지자체의 270개 음식특화거리 중 지역 예선을 통과한 6개 지구가 경쟁했으며 최종 3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완도 전복거리는 지역 특산물인 전복을 활용한 전복 단품 요리, 전복 소스 등 특화 메뉴 개발, 지역 축제 개최 시 전복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전복 요리 시식행사 운영, 음식점 객실·주방환경과 거리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직자가 업소를 매주 1회 이상 방문해 방역수칙을 점검하는 1업소 1담당제를 운영한 코로나19 생활방역 추진 사례가 큰 호평을 받았다. 완도 전복거리는 인근 수산물시장에서 신선하고 값싼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고 주변에는 완도타워, 장보고유적지, 명사십리 해변 등 관광지가 산재해 외식업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군에서는 민선 7기 군수 공약 사업으로 완도 전복거리 명소화 사업

양영욱기자

나주시,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공모 ... 12월 4일까지 작품 접수

아동친화도시 가치, 비전 함축 메시지 발굴 ... 아동친화정책의 공감대 도모



나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친화도시 가치와 비전을 함축하는 핵심 메시지 발굴을 통한 지역사회 관심과 정책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 및 대상은 오는 12월 4일까지 지역,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나주시를 상징 또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20자 내외의 문구 작품이다.

후보작 접수는 1인당 1건만 가능하며 우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시는 다음달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나주시 아동권리 대변인 및 아동 선후호 평가 등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작은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로 소정의 나주 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함축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 슬로건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관점을 변화시키고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담양 금성농협 양용호 조합장, 농업인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담양군은 금성농협 양용호 조합장이 제25회 농업인의 날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농업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정부 포상공모를 실시한 결과 양용호 조합장이 국무총리상에 최종 선정됐다.



오홍근기자

양용호 조합장은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 판로기반 조성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특히 RPC 광주·전남 운영협의 회 회장으로 적정 배배면적 확보와 선제적 쌀 수급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타작물 재배 사업을 적극 홍보 및 독려해 성과를 거뒀다. 또한 담양 쌀의 고품질화와 차별화된 유통 전략으로 서울 광주 등 학교 및 공공급식 친환경 쌀 납품 품평회에 적극 참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1억 여 원의 친환경 쌀을 학교에 납품하는 등 담양 쌀의 경쟁력을 높였다. 양용호 조합장은 "국무총리 표창은 조합원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 담양통합 RPC를 내실 있게 건립해 관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안군, 한국폴리텍대학 감사패 받아



기술인재 양성, 일자리 지역교육 기반 마련 공로

무안군은 지난 11월 19일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 창의융합기술센터 개관식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무안군이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과 일자리 지역교육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폴리텍대학 학교법인으로부터 수여받았다.

이날 행사는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 대학본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김원부 무안군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한국폴리텍 학교법인 이사장, 전국 한국폴리텍대학 총장, 기업체 대표, 중고등학교 교장단 등 100여명이 참석해 경과보고 공로상 수여식, 시설투어 등의 행사를 가졌다. 창의융합기술센터는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 2공학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융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900㎡ 규모로 건립된 교육시설로 제품설계

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통합 실습이 가능하다. 기술센터는 총사업비 5억여원 중 무안군이 5000만원의 재정지원을 했으며 대학생·기업체 재직자·신증년 교육, 시제품 제작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창의융합기술센터가 특화된 신기술분야의 4차 산업인재 양성의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대학과 지자체 협력의 혁신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에서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

- ◆ 해양치유란?
 - 청정한 해양 환경 속에서 해양기후, 해수, 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 만성질환을 치료, 심신을 치유하는 활동
- ◆ 완도가 왜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인가?
 - 공기 비타민인 산소음이온이 도시보다 50배 많고 바다 정화 역할을 하는 맥반석과 해조류 숲, 깨끗한 바다와 갯벌로 이루어진 청정 지역임
- ◆ 해양치유산업, 완도에 어떤 도움이 될까?
 - 국민 건강 증진, 일자리와 소득 창출
 - 농·수·축산업 동반 성장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해양기후요법

해양생물요법

해양광물요법

해수요법

지역 참일꾼 단양매포읍청년회, '대통령 표창' 수상



지역의 든든한 참일꾼으로 30여년간 역할을 다하고 있는 매포읍청년회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지난 1일 단양군은 '2020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매포읍청년회가 애환심을 바탕으로 일심 단결해 지역 발전에 앞장서며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기업, 단체 등 후보자 추천을 통해 공적내용 현지 실사, 공개검증 등 엄격한 심

사를 거쳐 수여하는 상이다.

매화골이라 불리는 매포지역의 청년들은 충효와 애향, 화합, 봉사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자고 의기투합해 1988년 매포읍청년회를 발족했다.발족 이후 회원들은 뜻을 모아 지난 30여 년 간 100여 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해 주민들의 호평을 얻었으며 사랑의 목욕봉사, 사랑의 연탄배달, 효 나눔 경로잔치, 도시락 배달봉사 등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펼쳐 타 기관·단체에 귀감이 됐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빠진 지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 밀착형 봉사 활동들이 빛을 발했

다.청년회는 지난 4월 코로나19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한 500만원의 후원금 전달을 시작으로 5월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시름에 빠진 읍민들을 위해 1만2000장의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했으며 150여회에 달하는 방역 활동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코로나 블루 해소 희망 꽃 화분 500개 제작 등에도 참여해 지역 안정화에 온힘을 쏟았다.또한, 6월에는 코로나19로 혈액이 원활히 수급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헌혈행사를 개최해 회원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헌혈증서 70장을 매포읍사보보장협의체에 전달해 긴급수혈이 필요

한 가정에 큰 희망도 전했다.

이외에도 2018년에는 생산적일손봉사를 통해 받은 지원금 120만원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해 충북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매포읍 공공도서관 신축 개관과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체험학습, 어린이 영화상영, 매화골 어린이 교실, 장학금 전달 등 후학양성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도 진행했다.청년회의 크고 작은 선행과 실적은 지역 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2004년 자원봉사유공단체 국무총리상, 2019년 충북중합자원봉사센터 으뜸 봉사상 등 각종 수상으로 이어졌다.매포읍청년회는 30-33대 청년회의 수장을 맡고 있는 장춘택 회장을 비롯한 서청구 사무국장 등 50여명의 회원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장춘택 회장은 "회원들이 단결해 내 고장 발전에 노력한 결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돼 더없이 기쁘고 더없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 매포읍청년회는 지역의 참일꾼이라는 긍지를 갖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건설에 헌신할 수 있는 모범청년양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황명선 논산시장,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방역 총력 기울일 것"

황명선 논산시장이 오는 3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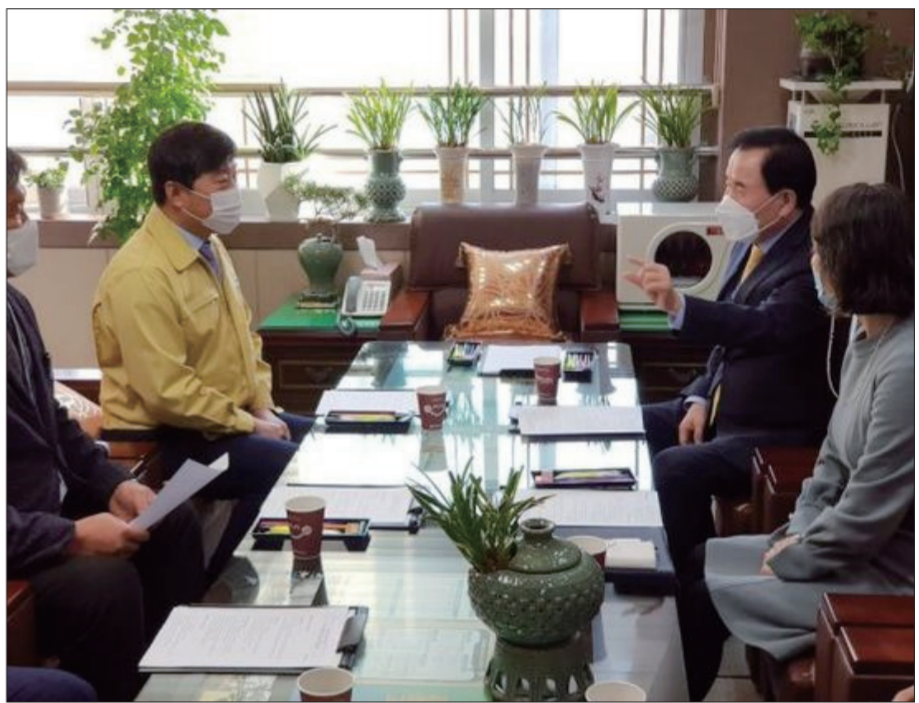
황 시장은 지난 30일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과 함께 자가격리자 전용 수능시험장인 강경고등학교를 방문해 시험실 방역상태, 칸막이 부착상태 등 코로나19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수험생들이 안정된 가운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능준비에 최선을 다한 학생 여러분에게 응원을 보낸다"며 "시에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험생이 갈고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끝까지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고사장을 비롯한 관련 시설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현재 관내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총 1명, 자가격리된 수험생은 총 13명으로 시는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양충휴양림 시설 격리자 및 자택 격리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수능 전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오후 10시까지 연장운영해 유증상 수험생의 검체를 채취하고 당일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긴급검체이송반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수능응시자가 가능한 격리병원으로 즉각 이송해 격리병원 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당일 수능이 종료된 이후 자가격리자가 시설 또는 자택으로 복귀하기 이전 재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고정화/기자



문화도시 청주 청년문화기획자 프로젝트 시동

12월 13일까지 청주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5개 프로젝트 진행

12월과 함께 문화도시 청주 청년문화기획자들의 프로젝트도 시작됐다.청주시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센터가 진행한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이 2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오늘부터 13일까지 청주 곳곳에서 그동안 기획한 프로젝트들을 선보인다.이번에 공개하는 청년문화기획자들의 프로젝트는 바다하다 청해 'EX'hibition 분리분리 예비산타학교 등 총 5개로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이 중 가짜로 우물함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준비한 힐링 프로젝트로 전시 관람은 물론 빈병 속에 난만의 바다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EX'hibition'도 눈여겨 볼 전시다.청주의 2030세대가 헤어질 연인과의 추억이 담겨있어 쉽게 버리지 못한 물건들을 수집해 사연과 함께 전시하는 이별 프로젝트로 '미련'이 아닌 당시의 '솔직했던 감정'들을 직시하는 시간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을 활용한 픽셀아트 전시부터 환경 관련 영화, 북 바인딩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입장료는 '플라스틱 뚜껑'이다.두 번째로는 '청해'가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상당구 북문로 2가에 위치한 유흥공간에서 진행된다.코로나19 장기로 우물함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준비한 힐링 프로젝트로 전시 관람은 물론 빈병 속에 난만의 바다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이성용/기자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문화프로젝트
문화도시, 불을 밝히다

청해: 바래민 바다
일 시 | 12.5.(토) ~ 12.(일)
장 소 | 상당구 북문로 2가 115-24 (2층 유흥공간)
내 용 | 해피콜을 주제로 하는 전시 프로그램
연 스타 | cheong_hae

EX'hibition
일 시 | 12.11.(토) ~ 13.(일)
장 소 | 카페 원점(상당구 상당로55번길 12-8)
내 용 | 헤어질 연인 사연과 헤어짐의 기억이다
연 스타 | exhibition_cj

온라인
분리분리 - 분리분리도 도와줘 분리분리
일시 | 12.2.(화) ~ 12.4.(목) + 12.10.(토) ~ 12.12.(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내 용 | 헤어짐의 기억을 주제로 하는 온라인 체험과 콘텐츠
연 스타 | zero_waiver2020

예비산타학교
일시 | 12.1.(토) ~ 12.7.(일)
일시 | 12.12.(토) ~ 12.13.(일) 오후 2시
내 용 | 크리스마스 전담 (예비) 산타 학교
연 스타 | santa_school

연세사랑
1. 지원비 (내부 후원금) 2. 후원금(100%) 3. 후원금(100%) 4. 후원금(100%) 5. 후원금(100%) 6. 후원금(100%) 7. 후원금(100%) 8. 후원금(100%) 9. 후원금(100%) 10. 후원금(100%)

공주시, 남공주산단에 한국서부발전 천연가스발전소 유치



남공주산업단지 2028년 준공 목표...연간 10억원 세수 증대

공주시는 지난 30일 시청 집현실에서 한국서부발전과 남공주일반산업단지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정섭 시장과 이준용 공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박희성 계룡건설 개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서부발전은 남공주산업단지 9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7천여원을 투자해 500MW급 천연가스발전소를 2023년부터 2028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

발전소가 건설되는 기간 총 15만여원의 건설일자리 창출과 지방세 75억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경우 연간 약 10억원의 세수 증대를 비롯해 200명의 인원이 상주,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한국서부발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한편 이번 천연가스발전소 건립 협약으로 남공주산업단지의 분양 실적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올 8월 분양에 들어간 남공주산단의 분양율은 현재 26.8%로 천연가스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분양율은 45.8%, 약 20% 가량 올라가며 조기분양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섭 시장은 "한국서부발전의 공주천연가스발전소가 2023년부터 6년간 건설되면서 이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 효과를 비롯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연간 10억원의 세수 효과도 기대된다"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지희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 등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발전소 건립을 계기로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청주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적극 추진

청주시가 남성·미원·남이면 일대에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시는 국비를 포함한 총 270여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했다.지난해까지 남성면 및 남이면 일부지역에 수도시설 확충을 진행해 현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이 사업은 2023년까지 남이면, 남성면 및 미원면 농촌지역에 배수지 2곳, 가압장 5곳, 상수관로 87km의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우선 남이면 양촌리, 가좌리, 대련리, 석판리 일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수대리, 등동리, 문동리, 사동리, 갈원리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올해 12월 말이면 가좌배수지와 양촌가압장 시설

이 완료돼 내년 봄부터 남이면 일부 지역에 급수신청을 받아 고간 마을 상수도 시설 노후와 오염으로 생활용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던 해당지역 주민들은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또한 한 사업을 통해 현재 지하수를 취수 및 정수해 보급하고 있는 남성면과 미원면도 남이면과 병행으로 사업을 추진, 지방상수도로 전환해 지하수 오염 및 고갈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시 관계자는 "취약한 지방상수도의 선진화와 상수도 소의지역의 생활향상을 위해 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역 내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계룡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추진

계룡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추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정 등 아이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로 유형에 따라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로 구분된다.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1회 최소 2시간부터 진행되며 등·하원 보조, 놀이활동, 식사·간식 챙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며 이 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질

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 중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이용 동행, 재가 돌봄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 위탁을 통해 돌봄공백 해소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민간위탁 시행 배경을 밝혔다.김은영 가족행복과장은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계룡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제천시, 농촌인력증개센터 일자리참여자 모집

제천시는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수확기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 인력 증개센터를 2021년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까지 농협중앙회와 함께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던 체계를 내년부터 지자체 중심 사업으로 개편하면서 제천시는 해당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농촌인력증개사업'은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하기 위해 농촌 인력 증개센터를 설치, 농가와 구직자 간 인력증개 등을 하는 사업이다.시는 내년도 농촌인력증개를 위한 영농작업반 구성을 위해 농작업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참여 인원을 상시모집하고 있으며 우선 모집은 12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고 있다.일자리 참여자에겐 농가에서 지급하는 임금 이외에 교통비 및 숙박비, 영농작업 반장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되며 단체 상해보험 무료가입을 지원한다.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도 마련했다.농 작업 경험이 적은 구직자의 경우 숙련자와 함께 영농작업반을 편성해 농가에 배정하며

일job를 제공한 농가에는 현장 실습 교육비를 하루 2만원씩 최대 3일간 별도로 지급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 인력 수급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여력 과제로 설정하고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농촌의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적기에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제때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을 할 수 있게 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서춘수 함양군수 '수능 대박 기원' SNS로 수험생 응원

수능일 대면 응원 대신 비대면 격려 메시지 전달

함양군 서춘수 군수가 오는 3일 치러지는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SNS를 통해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동안 서춘수 군수는 매년 수능일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험장을 찾았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SNS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서춘수 군수는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기까지 열심히 노력해주어

서 정말 고맙다"며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어 "올해 수험생들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불안한 수험생활을 보내온 만큼 수험생 모두가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당부했다.

함양군 2021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은 186명으로 함양고 함양제일고 2개소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자가 격리자 발생에 대비해 거장 아리랑고를 별도 시험장으로 운영한다.

송인용/기자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대통령상에 의성 김사영 한우농가 수상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가원이 주최하는 '제18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의성 김사영 한우농가가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 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욕을 고취를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한 해 동안 가장 좋은 품질의 한우와 한돈, 육우, 계란을 생산한 농가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농가가 출하한 축산물의 등급판정 결과를 분석하고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의성 김사영 농가를 포함한 총 15명의 수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대통령상의 영예를 얻은 의성 김사영 농가는 아들과 함께 현재 한우 275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올해 평가기간 동안 한우 31두를 출하해 육질 1++등급이상 출현율이 90.3%로 전국 평균인 15.7%보다 무려 74.6%p나 높았다.

또 출하한 31두 모두 육질 1+등급이상 판정을 받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김사영 씨는 "올해 질병으로 축산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시생활을 하던 아들이 귀농해 축산업을 함께 운영해준 덕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가

족들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철저한 혈통관리와 합리적인 사양관리를 통해 한우개량과 기반 조성에 힘쓴 결과 빛을 발한 것 같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해 노력한 김사영 농가에 축산농도 경상북도의 명예를 높여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경북한우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한우 개량 및 명품브랜드 육성에 힘써 고급육 생산과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류석/대기자



광주시, 11월의 공무원에 이정선 주무관·온라인소통팀 선정

광주광역시 '11월의 공무원'에 스마트시티와 이정선 주무관과 대변인실 온라인소통팀을 선정하고 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시상했다.

이들은 해킹과 도청을 방지하는 '양자암호통신 시범망' 구축과 '5G 통신환경' 구축 등 인공지능산업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마중물인 국비 144억원 확보한 성과와 24시간 온라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추측성 정보 차단과 홈페이지 시스템 재설계로 코로나19 정보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 불안감 해소 등 선제적 감염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각각 인정 받았다. 이정선 주무관은 올해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뉴딜사업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사업',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반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적용사업', '5G 오픈테스트랩 운영사업'에 총 144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4차 산업 기술 기반 광주형 DNA(D·N·A)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은 민선7기 공약으로 국비 18억원을 투입해 119구상상황실, CCTV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 등을 연계한 양자암호통신망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5G 융합서비스로 카메라 영상 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시스템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적용사업'은 국비 90여억원을 투입해 5G 서비스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시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5G 오픈테스트랩 운영사업'은 국비 36억원을 투입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에 5G 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호남권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시데이터센터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온라인소통팀은 지난 2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확진자 이동동선, 방역현황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어 홍보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급격한 확산에 따라 온라인대응팀을 구성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시 홈페이지 방문자 폭주에 따라 확진자 정보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긴급 대응페이지로 전환해 시민들에게 코로나19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인터넷상 정확하지 않는 추측성 정보들의 유포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정선 주무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비대면 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5G 융합서비스를 만들어 광주시가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소통팀의 한성철 주무관과 박영신 주무관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소통팀의 다른 팀원들에게 고맙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변함없이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나주시, '숨은 의인' 선정 ... 나눔실천·희망전파 2개 부문

시민 김성주, 오종순, 정은주 씨 의인 표창

나주시가 오랜 시간 묵묵히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해온 '숨은 의인'을 발굴했다.

나주시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2월 정례조회를 통해 숨은 의인으로 선정된 시민 김성주, 오종순, 정은주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민주시민 교육 및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발굴한 '숨은 의인'은 민주시민으로써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인물을 뜻한다.

시는 지난 10월 사회봉사와 인적·물적 재능기부에 꾸준히 힘써온 '나눔실천', 안전과 생명, 환경보호에 앞장서온 '생명사랑', 지역사회 화합과 용기를 불어넣는 '희망전파' 등 3개 분야 의인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나눔실천 부문 의인으로 선정된

김성주 씨는 현 전국교구자료협회 회장으로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 나눔 등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지난 2011년부터 남다른 후배사랑을 통해 나주진흥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해온 오종순 씨도 나눔실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취급성건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 씨는 수년에 걸친 장학금 기탁뿐만 아니라 평소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희망전파 부문은 빛가람LH6단지 관리사무소장을 역임중인 정은주씨가 선정됐다.

정 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맡은 후 주민 화합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강좌, 주민화합잔치, 푸드뱅크 운영 등 60여차례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온정 가득한 공동주택문화 조성에 기여하며 주민들의 칭송을 받아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희망을 만드는데 힘써온 세 분의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이웃과 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의인

발굴을 계기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과 활기가 더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금산군, 2020년 제29회 군민대상 수상자 선정

금산군에서는 군민대상심의위를 열고 3개 부문 3명의 후보자 중 2개 부문에서 2명의 군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제29회 금산군 군민대상 수상자는 산업진흥 부문에 이인배 씨, 사회봉사 부문에 양영자 씨가 선정됐으며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 특별공로 부문은 올해 수상자가 없다. 이인배 씨는 금산인삼농업이 FAO세계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금산인삼농업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금산인삼의 차별화와 위상을 드높인 공로가 인정됐다. 양영자 씨는 20여년 동안 여러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를 전개해 왔으며 희망풍차 결연사업, 독거노인 결연사업 등 자발적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가구를 돕기 위한 구호활동에

도 힘쓰는 등 지역사회 숨은 봉사자로서의 공로가 인정됐다. 군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군민에게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1991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19년 제28회까지 총 6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군민대상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는 12월 28일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정화/기자



농수산물

진도 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

우리 역사 속 공연 예술의 정점

내 손안의 궁중연희, 정재정감

인천시립무용단이 오천년 우리 역사 속에 전해온 공연예술의 정점에 있는 '궁중정감'을 담은 작품 '정재정감'으로 오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인천시립무용단 네이버TV와 유튜브 채널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춤 문화 유산의 체계적 계승과 더불어 전통의 경계를 넘어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한 이번 공연은 아름다운 우리 옛 문화를 온라인 콘텐츠로 재생산해 새로운 방식으로 전통의 격조를 전하고자 한다. 재예를 받들어 관객의 눈 앞에 올린다. 정재란 '재예를 받들어 올린다'는 뜻으로 궁에서 연희나 의식 때 찾던 악가무 일체의 궁중예술이다. 왕실의 공덕을 칭송하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이 작품들은 국가 기관에 예속되어 보호 전승돼 엄격한 형식 안에 담긴 춤사위 하나하나에 미학적 해석을 갖고 있다. 이 정재를 현대 무대에 불러낸 이번 '정재정감'에서는 화려한 복식과 무대를 채우는 의물로 전통의 시간을 불러내고 무대의 삼면을 분할한 영상 프레임에 담긴 정제된 색감을 통해 세련된 춤 공간을 펼쳐내었다. 공간 사이에 담담하게 흐르는 정악의 예스럽고 우아한 멋으로 두 개의 시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준다. 전통문양이 가지는 간결한 조형미, 자연색을 활용한 영상이 펼쳐내는 색의 농담, 절제된 기교와 담백한 춤사위로 우리 민족의 정서를 한 무대에 담아낸다.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약 50여 종의 궁중무용 중, 이번 공연에서는 특색 있는 레퍼토리를 선정해 무대에 올린다. 화려하게 피어나는 연꽃과 학으로 분한 무용수들의 춤사위가 흥미를 자아내는 명실상부한 종합가무극 '학연화처용무합설', 정재



중 대표적인 독무로 손꼽히는 '춘앵전'과 '무산향', 궁중에서 행해진 재민 공연에서 무대장치와 세트틀을 이용해 스펙터클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엄숙하고 장엄해 자칫 지루할 것 같은 궁중예술이 아닌, 궁중의 삶이 그대로 보이는 작품들을 통해 관객들이 정재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정재정감'이 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인 것이다.

김남남/기자

'방탄소년단 JIN 테마거리' 들어선 마포구 홍대축제거리

팬클럽 'China Jin Bar' 기획...6일까지 홍대 축제거리에 조형물 전시

서울 마포구 홍대 축제거리에 방탄소년단 멤버 진을 테마로 한 'BTS 'JIN' 테마거리'가 조성됐다. 마포구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홍대 축제거리에 글로벌 팬클럽 'China Jin Bar'가 기획한 BTS 'JIN' 테마거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팬들은 12월 4일인 방탄소년단 멤버 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홍대 축제거리 광장에 이를 기념하는 조형물을 설치 전시한다.

해당 조형물은 대형 LED화면을 배경으로 지구, 달, 별 등이 어우러진 우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BTS 멤버 진이 자신의 솔로곡 'Moon'에서 팬들은 그의 지구이며 자신은 지구의 케도를 돌며 빛나는 달이라고 노래한 것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알려졌다. 대형 LED화면에는 우주를 형상화한 배경화면을 비롯해 BTS의 공연영상 등이 상영되고 있어 흥대를 찾는 세계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테마거리에는 급격하게 몰릴 수 있는 관광객을 대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요원이 배치됐으며 거리두기 방역 수칙 하에 포토존 이용 및 관람이 가능하다. 한편 마포구는 이번 테마거리 행사 종료 후인 12월 둘째 주부터 홍대 축제거리에서 인근의 길고싶은거리로 이어지는 도보 구간에서 LED 경관조명을 활용한 빛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연말연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대한민국이 'BTS 보유국'이란 말이 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을 기념하는 테마거리가 조성됐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과 관광객이 야외에서나마 사진을 찍고 영상을 보며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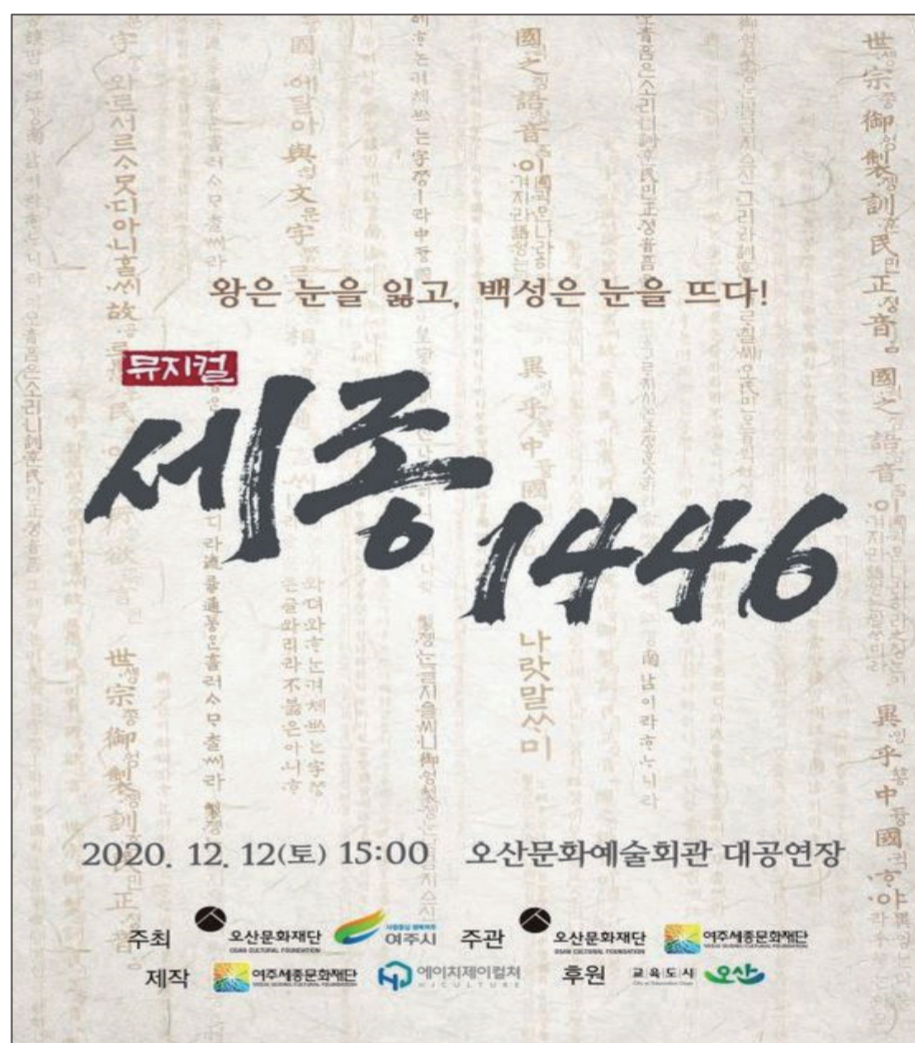
오산문화재단, 세종대왕 일대기 그린 '뮤지컬 세종1446'공연

오산문화재단은 오는 12월 12일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에 근간을 두었던 '세종'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세종, 1446'을 선보인다.

뮤지컬 '세종, 1446'은 세종대왕의 일대기를 그리는 작품으로 왕이 될 수 없었던 총명히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한글 창제 당시 세종의 고뇌와 아픔 등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는 작품이다. 초연 당시 세종대왕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밀도 있게 녹여낸 세종의 인간적 면모와 한국적인 선율로 풀어낸 노랫말, 화려한 무술과 의상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전 회차 기립 박수를 받으며 평단과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작품에는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애민군주 '세종대왕'역에 박유덕, 그의 아버지 '태종'역에는 남경주가 합세하며 세종과 대립하는 가상의 인물인 '전해운'역에는 장지후가 무대에 오른다.

또한 역사상 내명부를 가장 잘 다스렸다고 알려진 '소헌왕후'역에는 박소연이 출연하며 1인 2역에 매력적인 모습을 선보이는 '양녕/장영실'역에는 황민수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공연장 총 객석수의 30% 미만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좌석 띄어앉기를 시행한다.



오산시 19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 수험표 지참 시 5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김남주/기자

천안문화재단 한 뼉 미술관, 위로와 공감의 12월 전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마음을 치유하는 4건의 전시 개최

천안문화재단은 12월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내일의 희망을 안겨주는 4건의 전시회를 삼거리 갤러리와 작은 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삼거리 갤러리에서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이영희, 배영숙 작가의 2인전 '색프리'가 열린다.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색의 오묘함과 조화로우며 화폭 속에 담은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8일부터 12일까지는 김하현 작가의 '테두리 전쟁'이 진행된다.

육망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가변 설치 작품과 평면작품으로 담아낸 이번 전시는 개인과 집단,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작품을 선보여 관객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낸다.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곽여름, 단원, 정혜빈, 최길수 작가의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기분은 어때?'는 조소, 서양화, 동양화, 현대음악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예술가



들이 행복에 대한 철학적 담론을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평면, 입체, 음악이 어우러진 융·복합 현대미술 작품을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다. 서북구청 내 작은 갤러리에서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아트그룹 '마디'의 '경계와 비경계'가 예정돼 있다. 현대 회화를 중심으로 실험적이고 추상적인 작품 전시로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한 뼉 미술관은 코

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감염관리·방역 책임자 지정, 발열 체크를 통한 출입자관리, 손 소독제 및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오픈팅 행사 금지 등 방역의무 이행 및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삼거리 갤러리는 차량등록사업소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은 갤러리는 서북구청 별관 1층에 있다. 월·일요일은 휴관이고 관람료는 무료이다.

김원호/기자

속초문화예술회관 송년음악회 '희망갈라콘서트' 개최

탤런트 김석훈, 소프라노 강혜정 등 초호화 출연진. 12.1일부터 티켓예매

속초시는 오는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속초문화예술 회관 대공연장에서 속초문화예술회관 개관 30주년 기념 마지막 기획공연으로 송년음악회 '희망갈라콘서트'를 개최한다.

"잘가 2020, 그리고 반가워 2021- 탤런트 김석훈과 함께하는 희망 갈라콘서트"란 이름으로 속초시가 준비한 이번 공연은, 올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국내 최정상급의 아티스트들을 통해 순수함과 사랑이 가득한 음악으로 치유의 시간을 전함과 동시에,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희망으로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고자 마련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속초시를 방문하는데, 우선 전통클래식과 뮤지컬 관객 모두 사로잡는 한국 대표 성악가 소프라노 강혜정, 그리고 유럽과 미국 등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테너 김세일과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희, 거기에 지휘자 이승원과 55인조 트리니티필하모니오케스트라까지 초호화 출연진들이 100분동안 무대를 꽉 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기에 연기와 국민배우이자 베테랑 클래식콘서트 전문MC 탤런트 김석훈 씨가 해설을 곁들이며 관객들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제호 문화체육과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 기획공연으로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 끝에 속초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송년음악회를 기획했다"



시흥 시민을 위한 창작오페라 '벼꽃피다'

12월 18일-31일 유튜브 '생태문화도시 시흥'에서 공개

시흥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시흥시지부가 주관해 제작한 창작오페라 '벼꽃 피다'가 오는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생태문화도시 시흥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다.

이번 공연은 관내 전문예술단체가 지역 소재 공연 콘텐츠를 발굴하는 '2020년 시흥시 창작활동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제작됐다. 특히 연출가 임선경의 감각적인 연출로 2019년 쇼케이스로 선보였던 초연을 보완해 대형 오페라 작품으로 완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극단 기린의 이상범대표가 대부분을 집필해 호조벌 전설을 배경으로 간적으로부터 첫 벼꽃이 피기까지 권력 앞에 짓밟힌 인권, 정의, 호조벌에 어린 애절한 사랑이 이야기를 담았다.

감동을 더 할 음악의 작곡은 정보형, 지휘는 구보영이 맡았다. 한국음악협회 시흥시지부 관계자는 수많은 창작오페라가 일회성으로 사장되는 현실 속에서 우수창작공모를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 시흥시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임병택 시흥시장

고 있는 공연계와 시흥시민에게 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실리콘밸리' 투자수출 한마당, 비대면으로 개최

포럼, 전시, 수출상담회, 창업기업 피칭대회 등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미국 수출과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K-Global@Silicon Valley 2020' 행사가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나흘간 개최된다. 이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2012년 이후로 매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렸던 K-Global@Silicon Valley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온라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인·투자자들도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참여·관람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글로벌 산업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 산업을 주제로 ICT 이노베이션 포럼, 온라인 전시 및 수출상담회, 국내·외 창업기업의 피칭대회, 인공지능 Q&A 웨비나로 구성된다. 행사기간 중 제공되는 온라인 전시는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30개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인공지능, 보안, 사물인터넷, 스마트 헬스케어 등의 제품·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에서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의 가상전시 플랫폼인 'ICT 사이버월드'를 연계해 기업의 제품·서비스 소개 자료와 홍보 영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기업에 문의·상담요청을 남기거나 연락처를 교환할 수도 있어 마치 실제 전시장에 방문한 것처럼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수출상담회에서는 온라인 전시에 참여한 30개사를 포함해 총 48개사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미국 기업과 1:1 화상 상담을 진행한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기업별로 한·영 통역이 제공된다. 행사 첫날에 개최되는 ICT 이노베이션 포럼에서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AI산업의 핵심분야인 클라우드와 보안분야 글로벌기업 기조발표를 선두로 AI 솔루션과 어플리케이션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두 개 세션의 패널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발표는 네이비클라우드와 노턴라이프락 등 한·미 양국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기업의 CTO가 연사로 참여해 코

나 이후 시대의 인공지능 클라우드 및 보안 산업 동향과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 뒤이어 진행되는 패널토의에는 HP Tech Ventures, Deutsche Telekom Capital Partners사의 모데레이터와 함께 솔트룩스, Swit 등의 국내·외 우수 인공지능 기업의 CEO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인공지능 산업 전망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12월 2~3일 10:00~12:00 양일간 개최되는 창업기업 피칭대회는 미국 진출 및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 14개사의 경진대회인 'K-Pitch'와 7개국 10개팀의 창업기업이 경쟁하는 'International Pitch'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기업은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사업모델과 성장전략을 발표하며 피칭 심사는 미국 현지 온라인 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K-Pitch' 1위 기업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되며 2위, 3위 기업에게도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1·2위 선정기업은 다음 날 개최되는 국제 피칭 경진대회인 'International Pitch Competition'

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International Pitch'에는 'K-Pitch' 1·2위 기업을 포함해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각국의 연합 협력체인 IIA에서 선별한 스타트업 등 총 10개 팀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1~3위 수상 기업에게는 소정의 상품과 함께 KIC실리콘밸리의 네트워킹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12월 4일 10:00~12:00 마지막 행사로 개최되는 Q&A 웨비나는 일반인 또는 학생들로부터 사전에 접수된 AI관련 질문에 대해 Google 등 현지 AI 전문가들이 답변을 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ICT 혁신포럼, Q&A 웨비나 및 피칭대회에 참여한 기업들의 영상은 행사 종료 후에도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코로나19의 위기를 딛고 국내 경기 회복세가 꺾이지는 지금, 유망기업들의 수출·투자 기회를 열어 경기 반등의 불씨를 잘 살려야 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 뿐만 아니라 한·미 상호간의 비즈니스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지역 중소기업 지원성과 탁월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의 김해지역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원범위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추세다.

재단은 중소기업의 도시 김해의 명성에 맞게 지역 7,600여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기계·자동차융합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의생명·미래형 자동차 등의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함께 육성하기 위해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재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미래 경제성장의 중심이 될 강소기업 100개사를 발굴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유망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원기관 협업 프로젝트로 성과 또한 탁월하다.

전년말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김해형 강소기업은 선정 전과 대비해 평균 매출액 11.85% 상승, 수출액 44.93% 상승, 지식재산권 77건 획득, R&D 33건 성과라는 여력을 보여줬으며 76명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환원 등을 실천함으로써 경쟁 한 기업의 성장과 상생의 의미를 깨우쳐 주며 타 기업체의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재단이 중소기업의 자생력 및 R&D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기술 사업화 정보제공 지원사업도 눈여겨 볼만

하다. 당해 10개월간의 성과를 비춰 보더라도 총 6,238건의 중소기업 기술과제를 지원하며 연간 목표 건수 5,118건을 120% 이상 상회하며 선진 기술 습득과 아이디어 및 기술에 대한 사업화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초 해당사업의 주요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에이엔티의 경우 매출액 25억원 증가, ㈜제일전자공업은 고용 인원이 전년 대비 32명이나 증가해 핵심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R&D 투자와 사업화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개선, 기술인증, 제품개발, 특허 출원·등록 등으로 이어져 자생력을 높이고 추가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 재단은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비용 지원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에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내년에는 비대면 시대 기업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장 및 온라인 판로지원 등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재단 운영원장은 "힘든 시기지만 지역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팔관삼아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며 기업들의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중심지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고 밝혔다. **남궁영기자**

기업 투자자의 최적 지원 천

영천시시는 지난 17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내 마지막 남은 외국인투자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MOU를 체결함으로써 본 단지가 완공된 이후 7년 만에 100% 분양을 완료했다. 이는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의 분양완료 성과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와 공영개발 산업단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영천스타벨리는 영천시 중앙동, 화산면 대거리 일원에 122만㎡ 규모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로 지난해 사업 착수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토지보상에 나서 지금까지 99% 정도의 토지 보상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3월 조성 완료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좋은 기반에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투자유치 전략수립'용역도 진행 중이다.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등 수송기기, 로봇 등 첨단 자동차 산업분야와 바이오의료, 섬유 등 첨단바이오 산업분야를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규모별로는 선도·중소·벤처 기업 등에 공장점단화 지원, 임대료 공장

운영 등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영천스타벨리의 투자유치 환경분석, 중점유치산업 선정 타당성 검토, 인센티브 제안 및 홍보

방안 등을 모색해 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부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이다. 영천스타벨리는 2022년 상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해 영천시의 산업용지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든든한 기반 위에 뿌리 내릴 양기업 유치를 위해 시는 투자기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영천시는 양기업 등 우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2022년까지 2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까지 192억원을 적립해 창업기업 및 분사 이전 등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는 공장 창업 등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처리기한의 획기적인 단축을 위해 실무중심회의를 운영, 공장 설립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소극적인 칸막이 행정을 탈피하고 타 부서와의 협업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대창면 일원 공장 밀집 지역의 진입도로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 기업하기 좋은 영천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무중심회의를 대부분 서면으로 실시했으며 98회의 서면심의를 진행해 103건의 공장 민원을 처리했다. 영천시는 투자기업 뿐 아니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다각



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이 될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R&D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효용 공정개선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중소기업 고부가가치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능력증대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 관내 45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 및 특허·인정 지원을 받았으며 중소기업체의 공정개선 및 시제품 제작 R&D지원도 진행 중이다. 관내 연구기관인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경북테크노파크와 협력해 탄소복합재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장비대여 등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로 인해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

지만, 영천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진 및 이차보전 지원, 경영안정 특별지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안전한 기업일터 조성사업, 우수제품 홍보지원사업, 강소기업육성기반구축사업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업지원 SOS추진단 운영 등으로 위기 속에서도 지역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관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혁신성장을 통해 영천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며 POST코로나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발한 기업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한반식기자**

한-중미 FTA를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 개최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기업의 중미시장 진출 지원 및 수출 활로 모색 방안 논의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및 한국무역협회는 공동으로 오는 12월 2일 09:00-11:00 신라호텔에서 '한-중미 FTA를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간 정부는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6개국 16건의 FTA를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며 거대 지역 FTA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을 지난 11월 서명했다.

최근 중미 5개국 중 파나마가 한-중미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마무리 단계에 착수해, 중미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인들과 한-중미 FTA 활용을 제고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종욱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의 개회사,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의 환영사, 조하희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의 축사에 이어 코로나19 이후 중미 5개국 주요 이슈와 전망, 한-중

미 FTA 국별 활용 전략, 중미 진출 성공사례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미 지역은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허브이자,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서 한-중미 FTA와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등으로 한-중미간 무역·투자, 인프라 분야 진출 및 협력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상황이다. 특히 중미국가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나라의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과 관련된 디지털 전환, 전자정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한-중미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리기업의 FTA를 활용한 중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멕시코에 중남미 거점 FTA활용지원센터를 제적으로 설치했으며 파나마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다양한 맞춤형 FTA 활용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성용기자**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시티건설 '화성 남양시티프라디움 4차' 12월 초 분양예정

시티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뉴타운 B-14BL에 공급하는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의 견본주택을 12월 초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7개동 전용면적 84㎡ 단일면적형으로 구성되며, 총 556가구로 이뤄진다.

■개발호재 만발... 서부권 신규 주거지로 탈바꿈 하는 남양뉴타운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가 위치한 남양뉴타운은 화성시 서부권에 위치한 신규 주거지로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화성시청과 연계하여 행정복합 주거지로 발전하고 있는 곳으로 수용 인구 3만 9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주거지다.

먼저 남양뉴타운은 수도권 철도교통망 개발에 따른 직접 수혜지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서해안 복선전철 '화성시청역'이 2022년 신설예정으로, 2024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인 신안산선과 연계될 계획이다. 서해안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개통 시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며 이에 따른 직접 수혜가 기대된다.

여기에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 개통이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화성시 남양읍에서 팔탄면을 연결하는 발안~남양 고속도로 개발사업도 추진 중으로 도로교통망 개발에 따른 수도권 전역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남양뉴타운 시그니처 브랜드의

완성... 남양뉴타운 내 핵심 입지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는 시티건설이 남양뉴타운 내에서만 4번째 공급하는 브랜드 단지로 앞서만 3차에 걸쳐 성공적인 공급을 이어온 만큼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가 위치한 B-14BL은 남양뉴타운 내에서도 뛰어난 입지여건과 편리한 도로교통망 이용여건을 자랑한다.

단지는 계획 공원에 둘러싸여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단지 앞으로 뻗어 있는 남양로를 이용해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및 서해안 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하

다. 또한 단지 맞은편으로는 중심상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편리하고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도보권에서 누릴 수 있다.

■실수요자 주목하는 뛰어난 직주근접성과 경쟁력 있는 분양가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는 인근의 주요 산업단지 및 연구단지 출퇴근이 용이한 직주근접 단지이다. 단지 인근으로는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를 비롯해 노하 산업단지, 장안 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여기에 남양뉴타운을 가로지르는 77번 국도를 이용해 반월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안산이나 시화공단이 위치한 시흥, 삼성 반도체 공장이 위

지한 평택 등 인근 도시로의 이동도 편리해 경기 남부 일대의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들의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에 따른 내 집 마련 수요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 분양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여파에 분양가 경쟁력을 갖춘 신규 분양단지들이 단기 완판을 이루며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합리적 분양가로 공급되는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며 "특히 남양뉴타운 내에서도 핵심

입지를 자랑하며 지역을 선도하는 브랜드의 마지막 공급 단지인 만큼 뜨거운 호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는 코로나19(COVID-19)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한다.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입지, 상품, 청약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청약 당첨자에 한해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할 수 있다.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227-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예정일은 2023년 4월이다.

김남주기자

